

경희대학교 총동문회보



제 203호

www.khua.or.kr

KYUNG HEE UNIVERSITY ALUMNI NEWS

2007년 3월 1일 [목]

2007학년도 제 1학기 장학증서 수여식 더욱 더 분발하여 세계적 인재 되어주길...



경희대학교총동문장학회(이사장 박찬법)는 지난 2월 22일(목) 오후 3시 모교 서울캠퍼스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07년도 제 1학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총동문회를 대표하여 박찬법 총동문회장 겸 총동문장학회 이사장, 이병하 수석부회장, 이수경 감사, 유영걸 자문위원, 안영철 이사, 구현서 사무처장, 최동원 사무국장이 참석했으며 모교에서 조인원 총장, 이경자 부총장, 박규홍 대외협력부총장, 박종

(4학년), 언론정보학과 김희곤(4학년), 경영학부 김태훈(4학년), 관광학부 최예나(3학년), 생활과학부 조민정(4학년), 생물학과 김형래(2학년), 테크노공학 이윤식(4학년), 환경·응용화학 강수지(4학년), 생명과학부 이분내(2학년), 토목·건축공학 서바울(2학년), 국제학부 권아람(3학년), 유럽어학과 조은경, 예술디자인학부 김윤규(4학년), 임상현(체육학부 임상현(4학년) 등 16명과 일반대학원 호텔관광학과 맹은아(3

장 공평한 자선이므로 활용 잘하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학력, 지식, 경력을 중시했으나 지금은 '속도'를 중요시하는 시대로서 창조적이고 도전적 인재를 원한다"며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갖고 국경을 초월한 인재가 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인원 모교 총장은 "모교는 개교 60주년을 기해 총동문회와 협력하여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도약하겠다"며 "선배들의 사랑을

학부생 16명, 대학원생 2명 총 3천8백만원 지급 선배의 격려, 후배의 감사가 한 자리에...

국 교무처장, 김종규 학생지원처장이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했다. 한편 김병민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과 하대현 수원캠퍼스 학생회장은 총동문회 회장단과 모교 교수들에게 인사하며 선배들이 마련해준 장학금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영어학부 김영국(4학년), 법학부 민보라(2학년), 사회과학과 김정영

기), 언론정보대학원 저널리즘학과 구혜정(4기) 등 2명으로 총 18명이다. 총동문장학회는 학부생에게 각 200만원씩 총 3천2백만원의 장학금을, 대학원생에게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박찬법 이사장은 "장학생들은 장학금을 지원받는다는 것보다 선발된 학생이라는 것에 더 자부심을 갖기 바란다"며 "시간은 가

기억하며 학업에 매진하여 큰 일군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장학생을 대표하여 김영국(영어학부 4학년) 학생은 "훌륭한 교수님들의 따뜻한 격려 말씀과 사회에 진출한 선배님들의 자랑스러운 모습과 긍지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는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한편 최예나(호텔관광과) 학생은 박찬법 이사장에게 감사의

2006학년도 학위수여식

"경희정신 실천하며 내일을 준비하자!"

학사 4,281명, 석사 1,063명, 박사 202명 배출



2006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지난 2월 21일 각 단과대학별로 개최되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서울캠퍼스 학사 2,247명, 수원캠퍼스 학사 2,034명 등 4,281명, 석사 1,063명, 박사 202명 등 총 5,546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 날 박찬법 회장은 "새로 출범하는 사회 공동체 안에서 불굴의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희정신을 실천하며 사회에 적응하기를 기원한다"는 축사를 전했다.

조인원 총장은 "경희의 성공적인 미래에 관련된 '수월성' 제고를 통해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며 성찰적 수월성, 창조적 수월성, 참된 수월성에 대해 말했다.

최우수 논문상은 인문사회계열 법학과 김윤명 동문, 자연과학계열 물리학과 김태중 동문, 공학계열 산업공학과 홍성철 동문, 예체능계열 디자인학과 이충훈 동문, 의학계열 의학과 정경희동문이 수상했다. 우수 외국인 학생상은 생물학과 신연남 동문이 받았다.

오전 10시 30분 평화의전당에

서 개최된 박사, 석사 학위수여식에서는 대학원-박사 184명, 석사 536명, 동서의학대학원-박사 10명, 석사 29명, 국제대학원-석사 11명, 정보통신대학원-박사 3명, 체육대학원-박사 5명, 석사 21명, 골프최고전문화과정 20명, 대체요법과정 10명, 건강관리과정 13명, 건축대학원-석사 15명, 경영대학원-석사 98명, 최고경영자과정 8명, 교육대학원-석사 180명, 교육자과정 88명, 영양교사양성과정 30명, 행정대학원-석사 40명, 평화복지대학원-석사 20명, 테크노경영대학원-석사 40명, 최고경영자과정 24명, 언론정보대학원-석사 21명, 석사연구과정 4명, 국제법무대학원-석사 12명, NGO대학원-석사 9명, 관광대학원-석사 16명, 국제회의기획전문가과정 21명, 마스터소물리에와 인턴설턴트전문과정 35명,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석사 15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 날 영화배우 정준호 동문은 봉사활동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높인 점을 인정받아 공로상을 받았다.

(사진 : 김광순 기자)

꽃다발을 전달했다.

총동문회는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535명의 학생, 교수에게 6억 6천 3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고

현재 25억원의 기금을 적립하고 있다. 장학금으로는 전국 사립대학 중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스승의날기념 교무위원 초청 제5회 경희대학교총동문골프대회

일시 : 2007. 5. 15 (화) 낮 12시

장소 : 강촌컨트리클럽

‘생각 즉시 행동’, 독심으로 신화 창조

S&T 그룹은 발전설비, 자동차부품 및 방위산업 전문 그룹으로서 대부분의 계열사가 중공업 계열 산업체의 전형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그룹 전체의 분위기와 문화는 최평규(기계공학71/ 23회, 충동문회 부회장) 회장이 지니고 이는 기술에 대한 신념을 근간으로 한다. 본사가 서울에 있지 않고 경남 창원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도 다른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특이한 점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일반 소비자들이 S&T 그룹에 대한 인지도가 같은 규모의 다른 그룹보다 다소 떨어지는 이유다.

그러나 S&T그룹의 내면을 살펴보면 자산가치 1조 4000억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매출액도 1조 3천억원에 육박하는 명실상부한 신흥 그룹으로서의 위용을 지니고 있다. 현재 12개 계열사 모두 자기자본비율과 부채비율, 순수이익률 등에서 우수한, 말 그대로 알짜 기업들로만 구성되어있다.

2005년 6월 지금의 S&T 그룹으로 CI를 확정, 지난해 S&T대우(옛 대우정밀)를 인수하면서 현재의 진용이 완성된다. 신흥그룹으로서 이제 도약을 시작하는 S&T그룹. 오히려 현재진행형보다는 미래발전가능성에 더욱 가치를 확인 받고있는 S&T 그룹은 최평규 회장이라는 한 인물로부터 시작된다.

“기업은 기술력으로서만 존재한다”

S&T 그룹 현재의 모습 이면에는 과거 어려웠던 시절과 만만치 않았던 인고의 계절이 존재한다. 최평규 회장은 “1979년 6명의 직원으로 출발한 S&Tc(옛 삼영)은 20여년 동안 기술력을 근간으로 탄탄한 회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창업 이후 지금까지 기업의 운명은 독자적인 기술개발에 달려있다는 것은 변치않는 사실이고 S&T 그룹의 현재가 이러한 것을 증명해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어서 “분야별로 천차만별이지만 기술은 초기 개발과 상용화 단계, 시장에서의 인정까지 10년에서 15년 주기로 연동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의 수명은 최소한 10년은 된다는 의미이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와 전략에 대한 경영기법적인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지만 근본적으로 기술력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적극적인 모색 없이는 기업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최근 기술력이 존재하는 벤처기업은 장수하고 기술력 부재로 인해 도태하는 벤처기업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한다. 이와 같은 기술에 대한 그의 해안과 신념은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과 S&T대우(옛 대우정밀)를 인수하는데 결정적인 견인차 역할을 한다.

‘기업은 구성원 모두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

“통일중공업은 그 당시 세간에 알려진 바와 같이 노조의 힘이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으로 정평이 나있었습니다. 누구도 인수를 꺼려하는 기업이었지만 1959년 창업 이래 60년대 초반부터 수출이 이루어질 만큼 축적된 잠재 기술력은 보증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었지요. 아마도 그동안 있었던 노사분규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중공업계 판도는 많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한다.

최평규 회장은 이에 대해 “2003년 3월 통일중공업을 인수한 이후 일부 언론에 나타난 것과 같이 회사를 위해서 365일을 현장에서 지냈습니다. 일요일도 없었지요. 인수당시는 노사분규라는 문제보다는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라

는 것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지만 인수한 이후 1년 간은 저로서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지칠대로 지친 극한 상황까지 갔지요”

S&T중공업은 2003년 최평규 회장 취임과 함께 1년간 인고의 계절을 거친 이후 인수 이전 1,926%에 달하던 부채비율이 2003년 107.1%, 2004년 94.9%, 2005년 58.7%로 동종업계 최고의 재무개선을 이루어냈으며, 매출액 면에서는 2003년 2,232억원에서 2004년 2,638억원, 2005년에는 전년 대비 5.5% 성장한 2,782억원을 획득했다. 지난해에는 31.2% 증가한 3,650억원을 달성했다. 영업 이익면에서는 2004년 84억원에서 2005년 155억원, 2006년 250억원으로 3년연속 고공 흑자행진을 계속하면서 S&T 그룹의 주력계열사로 거듭났다.

최평규 회장은 양복보다는 작업복이 더욱 어울리는 사람이다. 우리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영이라는 열교환기 전문 기업체를 굴지의 수출회사로 키우기까지 그가 보여온 기술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독심은 중공업에서도 그대로 발휘되고 있으며, 대우정밀 인수 이후 그룹계열사간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변치않는 몇가지 경영 원칙들

지난 2월 최평규 회장을 만났던 금천구 가산동 서울사무소 현관 앞엔 “생각 즉시 행동”이라는 최평규 회장의 경영원칙이 각인되어있다.

최평규 회장은 이에대해 “생각 즉시 행동이라는 지침은 기술개발을 해야한다는 의지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기술자들이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행동에 즉시 옮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술개발이 바로 그러한 분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룹의 모태인 S&Tc가 작지만 강한 기업이 될 수있었던 것은 독자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기술개발을 하지 않는 기업은 영원히 시장의 선택을 받을수 없다는 뜻입니다”라고 말한다.

그의 경영에는 3가지 불변의 원칙이 존재한다. 첫 번째가 인재경영이다.

최평규 회장은 “인재는 기업의 미래이며 재산입니다. 구태여 세계적인 기업들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우수인재 확보는 현대 경영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 5의 물결이라는 지식사회의 핵심가치도 창의적이고 열정을 지닌 인재입니다. 미래 지향적인 기업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첫 번째 요소이자 핵심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두 번째로 S&T 그룹은 투명하고 맑습니다. 고객의 신뢰와 노사간의 믿음도 투명경영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을 대상으로 경영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은 투명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시작이며, 업무에서 비롯되는 비윤리적인 관행들은 철저히 차단되어야할 대상입니다.”



※ 최평규 회장 약력

- 1952년 출생
- 1971년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 입학
- 1975년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23회)
- 1987년 무역의 날 대통령표창 수상(국산개발부문)
- 1997년 우수자본재 개발 관련 대통령표창 수상
- 2002년 무역의 날 7,000만불 수출의 탑 및 금탑산업훈장 수상
- 2003년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수출부문)
- 2003년 자랑스런 경희인상 수상
- 2003년 S&T중공업 회장(현)
- 2006년 S&T대우 회장(현)
- 2006년 S&T그룹 회장(현)

최평규 회장은 마지막으로 “노사상생의 경영은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나 투쟁민능주의에서 벗어나 상호신뢰와 협조 속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선진노사문화의 기틀을 수립하는데에 궁극적인 목표가 존재합니다. S&T중공업 당시 전체 인원 100% 고용승계를 해낼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노사상생의 문화 구현을 위한 노력이었습다” 덧붙였다.

이와 같은 최평규 회장의 경영원칙들은 2004년 S&T중공업 주식 45만 3천여만원 주식을 전사원에게 액면가 500원씩에 나눠주었으며, 2005년에는 생산직과 사무직 전원에게 1인당 1만주식의 스톡옵션을 부여한다. 또한 2004년 설에는 4억 2천만원의 사재를 출연하여 생산장려금으로 전사원에게 지급했으며, 2004년 여름방학부터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캠프는 연참가인원이 1천 여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다. 이중 20명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사재를 출연하여 미국에 해외어학연수를 보내주고 있다.

기계공학은 그의 시작과 끝

최평규 회장은 1952년생이다. 전쟁통에 태어나 모두 못살았던 시대를 겪었다 한다 “모교인 경희대 기계공학과에 1971년에 입학해서 대학 4학년 여름방학 때 취업을 했고 5년 동안 발전부품 관련 업체에서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이후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미국에서 고생하는 것만큼 노력하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귀국을 감행했고 13평 아파트를 판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지요. 그때가 27살이었으니까 올해로 29년이 됩니다. 처



경희대학교충동문회

발행인 : 박 찬 법

편집위원 : 정재규 (치의 68) 충동문회 사무총장(대한치과의사협회 명예회장)

구현서 (사학 55) 충동문회 사무처장

손두형 (미교 73) 충동문회 홍보부위원장(금호타이어 상무)

박석태 (영문 73) MBC 논설위원

손백현 (체육 74) 충동문회 홍보부위원장(경희대학교 홍보실장)

안용철 (국문 75) 중앙일보 편집 부국장

송상근 (정의 82) 동아일보 사회부 차장

발행 : 경희대학교 충동문회 / (재)경희대학교충동문장학회

주소 : (우)110-380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농동 115-3

전화 : 744-8854~6, 0505-999-1234

팩스 : 744-0067

디자인 : 네오이크(3143-6092)

S&T 그룹 2011년 전체 매출 3조원 목표... 이제부터 시작

최평규 회장, 끊임없는 독자기술개발과 기술에 대한 확신과 신념

음에 6명으로 시작된 회사가 S&T 그룹의 모기업인 삼영기계공업사입니다.”

당시 삼영기계공업은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002년 코스닥상장사중 영업이익율 1위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25년간 무차입경영, 발전설비 부품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위 회사가 되었다.

최평규 회장은 우리학교 기계공학과 71학번이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기술력에 대한 그의 신념은 전공에서부터 근간을 이룬다.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그것을 가꾸어나가는 것이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경영은 기술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대를 중시하는 최근의 사회적 모습들은 기술에 대한 중요성을 도외시한 결과입니다. 기술이 없는 기업은 도태하듯이 국가경쟁력도 기술을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 삼영으로 회사를 시작하고 통일중공업 인수와 대우정밀을 인수할 당시 기계공학을 전공했던 토대가 있지 않았다면 각각의 회사들이 지니고 있었던 잠재기술력을 간파했을 것이고 지금의 S&T 그룹은 존재하지도 않았겠지요. 모교에서도 공과대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연구를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이루어져야 하고 동문회의 역할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라고 말한다.

‘참된 빛은 빛나지 않는다’

S&T 그룹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인 편이 아니다. 기계 자동차 분야 한 분야만 추구해온 특징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구태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드는 즉시 전량 내수 및 수출되는 탄탄한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룹 전체가 엔지니어들로 꽉 채워진 분위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평규 회장은 “올해부터는 그룹의 이미지 개선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기업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2011년 전체 그룹매출 3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계열사별로 성장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S&T 중공업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2011년부터 1500마력 독자변속기 생산을 목표로 단계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체 매출 1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T대우는 현재 국방부와 공동으로 자주포 개선사업을 진행중입니다. 2010년까지 총 460억원의 개발비에 매출액만 1조5천억원에 달하는 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힌다.

최평규 회장은 형식과 절차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회사에서도 옆집 아저씨의 이미지로 통하고 현장에서 사원들과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한다. 월급에 법인카드도 없고 곱창집에서 사원들과 소주한잔 기울이기를 좋아한다.

선가에 眞光不輝(진광불휘)라는 말이 있다. 참된 빛은 빛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최평규 동문의 삶과 그가 이룩한 현재의 모습이 바로 진광불휘의 진면목이 아닐까 싶다.

글 오세운 기자
사진 김광순 기자



S&T는 Science&Technology

독자기술, 일등품질 통해 일류기업 의지 표현

S&T 그룹은 2005년 6월 CI통합을 거치며 탄생한 신생그룹이다.

S&T는 Science&Technology를 의미하면서 독자기술, 일등품질을 통해 일류기업을 향한 의지를 표현하는 Super&Top의 의미도 함께 지니고 있다.

또한 그룹의 모태인 삼영(Samyoung)과 주력계열사인 통일(Tongil)중공업의 첫글자를 결합한 이름으로 기업통합의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룹은 2개 자회사, 3개 해외공사를 포함해 총 12개의 계열사로 구성되어있다.

◆ **S&T Corporation(옛 삼영)**=S&T그룹의 모회사로 1979년 최평규 회장이 설립해 국내외 주요 플랜트 및 발전소에 핀투브형 공랭식 열교환장치를 공급하고 있다. 무차입 경영을 실현해 오고 있으며, 종업원은 150여명. 지난 2006년 매출액 1,200억원, 당기순이익 213억원을 달성했으며, 올해 목표 매출액은 1,600억원이다.

◆ **S&T중공업(옛 통일중공업)**=1998년 부도 이후 4년여의 법정관리를 거쳐 지난 2003년 최회장이 M&A를 통해 인수했으며, S&T그룹의 주력 계열사다. 1959년 설립 이후 줄곧 방산품을 비롯해 초정밀 자동차용 변속기와 차축, 공작기계, 산업 기초소재인 주물품 등을 생산하고 있다.

◆ **S&T대우(옛 대우정밀)**=2006년 9월 13일 S&T그룹의 새로운 계열사가 된 S&T대우는 한국형 소화기를 개발·생산한 방위산업을 모체로 1981년 설립됐다. 이후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여파와 2000년 말 대우자동차의 부도 등으로 대우통신에 일시 흡수합병 됐지만 2002년 다시 대우통신에서 인적분할, 기업개선 작업을 통해 2003년 10월 워크아웃 자율추진 기업으로 전환됐다. 자동차용 모터사업을 비롯해 전자·특수 등 총 6개 사업을 통해 지난해 말 5315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100%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S&T기전(옛 한국기전)과 S&T전장(옛 성우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 **S&T브레이크(옛 대화브레이크)**=국내 최초 비석면 브레이크패드 라이닝을 생산하는 S&T브레이크(옛 대화브레이크)는 객차·철도용, 승용차와 상용차용 브레이크 마찰재를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1966년 설립돼 국내 철도용 브레이크 라이닝의 9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2004년 S&T중공업에 M&A 되면서 그해 6월 경기도 안산에서 창원으로 이전, 제2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 **S&T상호저축은행(옛 경우상호저축은행)**=1971년 설립 이후 35년간 마산 지역의 토종 금융기관으로 성장해 온 '자기자본비율(BIS) 전국 1위', '부도확률 0%'의 우량은행. 지난 4년 동안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2004년 예금보험공사 전국 114개 상호저축은행 종합경영평가 전국 1위, 2005년 종합경영평가 전국 1위, 2005년 이코노미스트 선정 전국 113개 저축은행 중 1위를 차지하는 등 '클린 저축은행'으로 인정받고 있다.

◆ **S&T솔루션**=기업 정보화 기획, 컨설팅 및 수행, 네트워크 구축, 문서보안관리 등을 전문으로 하는 IT(Information Technology)기업이다. 2004년 전 사원 사원주주제(ESOP)로 출발해 그룹 계열사의 정보시스템 구축과 데이터 관리 등을 수행하며, 미래 사회를 선도할 지식사업의 주체로 e-비즈니스 컨설팅사로 성장, 발전해가고 있다.

◆ **호텔설악파크**=설악산과 동해의 관광명소를 끼고 있는 강원도 유일의 특급호텔로 과거 동아그룹 계열이었으나 지난 2003년 최 회장이 인수, 종합휴양시설을 갖춘 '리조트형 호텔'로 새 단장했다. 1978년 설립된 설악파크는 연면적 4천939평에 지하 3층·지상 9층, 옥탑 2층 규모이며, 최고급 로얄 스위트룸 등 객실 121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중국 현지의 청도S&T중공유한공사를 비롯해 선양금배통일차량부품유한공사가 S&T그룹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광주사위중공유한공사도 발전소와 플랜트 공사에 필요한 제품 생산을 위해 현지에 진출해 있다.

ROTC 동문회 신년교례회 및 음악회 제8대 집행부 출범, 발전기금 전달 등



ROTC동문회(회장 최동량)는 지난 1월 25일 육군회관에서 신년교례회 및 음악회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는 박찬법 총동문회장과 김병묵 ROTC중앙회 회장을 비롯해서 이종소(1기), 양승권(2기), 김세출(3기) 동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허만송(12기)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1기 선배에 대한 거수경례 및 동문 상호간 인사에 이어 최동량 회장은 8대 신입 집행부가 새로 구성된 것에 감사를 표하고 “회장단이나 집행부만의 동문회가 아닌 회원이 참여하여 함께 이끌어 가는 동문회를 만들겠다”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김병묵 중앙회장과 박찬법 총동문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ROTC동문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강건함을 기원

했다. 축시낭송과 축하떡 절단 및 건배 후 8기 동기생들은 최동량 회장에게 ROTC동문회 발전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

새로 출범된 8대 집행부에는 김병묵 중앙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김성호(7기) 명예회장, 장차석(8기) 수석부회장, 권오경(8기) 상임부회장, 김흥기(25기) 총무분과위원장을 위촉하였으며 이 날 위촉패 수여식이 함께 거행되었다.

한편 저녁 만찬은 코리아 챔버 오케스트라(단장 박경식)의 연주로 음악회가 병행된 가운데 동문들은 서로 인사하며 덕담을 나누며 신년 축제를 즐겼다.

-허만송 사무총장-

월례회, 기별 모임 정례화 친목 통한 조직활성화 추구



ROTC 최동량 회장은 1월 25일 신년음악회를 결들인 신년교례 모임을 시작으로 동문조직의 확대 및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보다 많은 인원이 동문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기별 회장단, 이사회, 집행부의 임원 월례회의 모임 등의 정례화를 통하여 기별 동문 간의 친목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동기회 미 결성 기수에 대한 신규 동기회 창립을 지원하고, 21기 이후 서울과 수원의 기별모임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행사시 집행부가 참여하여 지원하고 직능별 모임 확대 및 학훈단 후보생과의 교류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경무회의 발전은 집행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선배들의 지도와 편달 그리고 후배동문들의 성원 속에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찾은 만남이 경무회를 살찌울 것이다. 새해 정해년에는 동문들이 자주 만나 큰금 돼지를 살찌어나가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칭찬합시다 ② - 경희가족의 사랑과 봉사

늘사랑장학문화재단 설립 장학금 2억원 지급 한국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보호부문 대상 수상



사진 : 2006년 장한 한국인상 수상장면 (기관 및 단체, 협회, 네티즌등의 추천을 받아 '장한 사회인상'을 수상했다)

김상기(행정대학원 21기 졸업)동문은 1983년도부터 현재까지 한국늘사랑회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어 심장, 신장, 백혈병, 몸 전체기형 등으로 고생하는 환우 450 여 명을 수술해 주었으며 소년.소녀 가장 7세대에 아파트를 사서 입주시킨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자비로 재단법인 늘사랑장학문화재단을 만들어 500 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공로로 교육감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전국교도소, 보호관찰소, 소년원, 각급 학교 무료강의 5000 여 회 출장과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의 일환으로 16년동안 청소년선도 및 자립기반을 시켜준 공로로 법무부장관상 3회와 자랑스런 자원봉사상을 받았으며 50 여 차례 군부대 위문공연으로 국방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도 한국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시상하는 청소년보호부문대상을 수상하였다. 특히 본인 운영하는 안경원에서 무의탁 노인분들에게 노안경 무료 제작, 청소년 근시인들에

게 안경 무료착용을 1억원 이상 해주어 주위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다. 청소년 문화 창달을 위해 각종 콘서트유치 및 교양 강좌를 50 여회 열어서 좋은 반응을 받기도 했으며 “행복은 가정부터”라는 슬로건아래 “가정행복학교” 책자를 매월 발행하여 무료 배부를 해주면서 부부대학, 어머니대학, 아버지대학을 열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아시아 최초로 지난 1993년도에는 국제로타리클럽에서 주는 “초아의봉사상”을 수상했다.

밝고, 맑게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무의탁노인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 및 해외 나들이도 5차례 실시하기도 하였으며,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분들께 헌혈카드1만5천매를 전달하기도 하였고, 중국청소년들을 위해 동심원(고아원)설립운영 중국 소외계층들을 지원한 공로로 외국인 최초로 연변 훈춘시 인민정부에서 영예시민증도 받았다.

사랑의 장기 기증운동 전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강원도 전지역에서 장기 기증 수술을 150회해주었으며 1800 여명이 사후 장기 기증하도록 하고 본인도 사후 장기기증을 하였다. 김상기 동문은 경희대학교 영북지구동문회 부회장을 맡아 동문회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오랫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하며 우리 경희대학교를 빛낸 동문이기에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동문회보에 새롭게 만든 “칭찬합시다” 코너에 추천합니다.

-이경희(영문62/10회)-

주변에서 말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경희가족들에 대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서로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줍시다. (보낼 곳 : khua2000@hanmail.net)

건강칼럼

미나리차... 건조한 봄날씨 감기에 안성마춤

반복되는 황사와 건조한 봄 날씨때문에 인후염이 생기고 편도선이 붓거나 고열 감기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럴 때는 봄과 초여름이 제철인 미나리 약차를 마시면 좋다. 미나리는 맛은 달고 성질은 평온하며 정기와 골수를 보하고 폐,위장의 기능을 도와준다.

미나리는 뿌리 잎줄기를 사용하며,곧게 자란 것,잎의 녹색이 진하며 싱싱한 것이 신선하다. 대개 빨간색을 띠고 바위틈에서 나는 키 작은 돌미나리가 늪에서 자라는 미나리보다 영양이 더 우수하다. ‘동의보감’에는 미나리가 갈증을 풀어주고 머리를 맑게 해주며 술마신 뒤의 열독을 다스린다고 했다. 또 대장과 소장을 편안하게 해주고 월경 과다나 냉증에도 좋다고 기록돼

있다. 비타민이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고혈압 환자에게 적당하고 해열,일사병 등에도 효과가 있다.

갈증을 없애주고 이뇨 및 해열 작용이 있어서 열이 나거나 황사로 인해 인후에 통증이 있을 때 차로 끓여서 물마시듯 자주 마시면 좋은 효과가 있으며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 미나리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즙으로 마셔도 되고,뭍쌀을 넣고 죽을 쑤 아침 저녁으로 먹을 수도 있다.

◆ 만드는 법=미나리를 햇볕에 잘 말려 물 1ℓ 에 미나리 20g을 넣고 약한 불에 30분 정도 문게 끓여 수시로 복용한다.

-곽순애 (모교 간호대 외래교수)-

의료용 유리용기 제작 35년 서정섭 동문 모교 발전기금 1억원



35년 동안 의료용 유리용기만을 제작해 온 동신관유리공업(주) 대표이사 회장 서정섭 (법학58/13회) 동문은 최근 모교에 발전기금 1억원을 기부했다.

서 동문은 “제가 학교에 다닐 당시, 서울 캠퍼스 중앙도서관이 한창 지어지고 있었지요. 대학에 다니면서 얻은 지식과 그 당시 결심했던 바를 토대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선진국에서 기술을 배워다 기계 다루는 것, 생산관리, 판매관리까지 직접 했습니다”라며 개척에 매료되어 일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발전기금을 기부하게 된 이유를 묻자 “내 모교니까요”라고 간단히 대답했다. 동신관유리 공장은 부평에 위치하고 있으며 애플 제작, 바이알 제작, 그리고 기계 개발 및 제작,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다. 기계 개발 및 제작 공장을 따로 둘 만큼 자체 기계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제품의 상당부분을 유럽과 일본 등에 수출하고 있다.

서 동문은 “동문들이 후배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라며 경희맨으로서의 긍지를 드러내었다.

캐나다 동문회 유종면 회장 골프, 등산 등 스포츠 병행한 화합의 장 확대하겠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동문회는 지난 1월 20일 토론토 ‘한강’ 한식집에서 신년동문모임을 갖고 유종면(경영77/32회) 동문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내년까지 2년간 동문회를 이끌어갈 일꾼으로 안진우(조경77) 부회장, 손정호(원자력82) 총무, 목진일(원자력86) 공보 등 신임회장단이 결성되어 경희인의 해외 활동 영역을 넓혀갈 각오가 새롭다.

온타리오주에는 주소가 파악된 경희동문이 100여명 거주하고 있으며 신년모임, 골프대회, 야유회 등 정기모임을 통해 매년 30~40명의 동문들이 모이고 있다. 주로 이민자들 중심으로 모이고 있어 경조사 등을 중요시 하고 어려울 때, 마음을 함께하여 우의를 다져가고 있다.

모처럼 고국 땅을 밟은 유종면 회장은 지난 2월 1일(목) 총동문회관을 방문하여

임기 중 동문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포부를 밝혔다. “그동안 가을에 개최해 온 정기 골프대회를 연 2회로 늘리고 매달 친목을 위한 골프대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스포츠를 병행한 동문들의 화합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라며 등산, 취미 등 비공식적 모임도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동문회가 활성화되려면 젊은 동문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여성 동문들이 즐겁게 참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동문들의 참여도를 높이려면 부부동반 모임을 활성화하여 가족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라며 미소를 지었다. 캐나다 거주 동문들은 아직까지 총동문회보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지만 올해는 대대적 주소 파악을 하여 총동문회가 발행하는 동문회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기회에 총동문회 교기를 제작하여 캐나다 동문회에서도 교기를 걸고 동문회를 할 것이라며 경희인의 자부심을 드러내었다.

유 회장은 이민 전, 이 곳 한국에서 제일 은행 주택금융부, 신탁부 및 국제부 등에서 17년간 근무했으며 캐나다 이민 후 한인 최초로 태나다 모기지협회 공인모기지 전문가로 인정받아 현재 주택모기지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

캐나다에는 경희인 뿐 아니라 여러 대학 출신의 한국인들이 교류, 10여대 대학팀이 매년 골프대회를 열고 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우리 동문팀이 2년 연속 우승을 하여 경희의 위상을 높였다.

유회장은 “올해도 경희인들이 우승컵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응원해 달라”며 총동문회와 캐나다 동문회의 지속적인 교류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동문회 한경자 회장 취임 이애라 수석부회장 등 임원 위촉



여성동문회는 지난 1월 20일(토) 낮 12시 강남구 소재 상제리제류페에서 신년모임을 가졌다. 이 날 장홍자, 임진출, 김경술, 김상혜, 황 선, 장혜원 등 역대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적극 참석하여 신임회장단 발족을 축하했다. 이순자 전임회장은 모친상으로 인해 불참했다.

한경자 회장은 “그동안 친목 중심으

로 소수의 동문들이 참석했으나 이제는 규모를 키우고 모교와 동문들에게 기여하는 동문회로 활성화시키겠다”며 취임 인사를 했다. 이 날 이애라 수석부회장, 김경희, 김경인, 이병혜, 김정희, 주경복, 이호숙 등 부회장들과 김경순 총무가 위촉되었다.

-김경순 총무-

“김치국물 묻은 옷으로라도 뛰어나와 반기고픈 만남을...”



호 연락이 이루어지고, 오가는 길에 들려 커피 한잔을 먹을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한 회장은 회원들에게 관심거리를 제공하고 동문모임에 대한 애착을 형성하고자 몇 가지 특별 모임을 구상 중이라 했다.

“날씨 좋고 회원들이 바쁘지 않은 날을 택하여 민족문화 탐방 기회를 갖고.... 이왕이면 야외에서 특별한 모임을 가지면 좋겠지요? 과거에 모교에서 버스를 제공해 줘서 여행을 멋지게 한 적이 있어요. 다시 활성화 시켜 볼게요.”라며 기분 좋은 어느 날을 회상하기도 했다.

한편 기존의 월례회를 활성화 시켜 새로운 회원들이 자원해서 나오도록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총동문회 산하조직으로서 총동문회 각 행사에 참여할 뿐 아니라 모교를 후원하고 재학생들을 격려하는 것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회장단을 개편하고 행정조직을 재정비해야 해요. 회원 명부부터 확보하여 경조사부터 챙겨 나가야겠어요. 부담없이, 가족 만나듯 친구 만나듯.... 김치국물 묻은 옷으로라도 뛰어나와 반기고픈 그런 만남을 만들어야지요”라며 “많이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남겼다.

여성동문회를 이끌어 갈 한경자(작곡64/16회, 전 통일여중 교장) 회장은 올해 들어 총동문회관 방문이 잦아졌다. 사무처 문을 열 때면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라며 직원들 격려를 잊지 않는다.

지난 1월 20일 신임회장 취임식을 갖고 여성동문회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이것 저것 방법을 구상중인 한 회장은 “우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요. 동문회관 회의실을 좀 사용할까요? 아니지... 행정 업무를 볼 공간도 필요해요.”하며 수 차례 협상(?) 끝에 총동문회관 자료실에 터를 마련했다. 이 곳에서 행정업무와 동문들의 상

국문학과 홈커밍데이-4월 21일 홈페이지 khgukmun.or.kr



국문학과 동문회(회장 고경식)는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 동문회관 5층 강당에서 신년회를 가졌다. 이 날 모임에서 고경식 회장은 우중에 참석해 준 동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오는 4월 21일 개최되는 홈커밍데이에 많은 동

문들이 참석해 주기를 당부했다. 최상진 문과대학학장은 국문학과 의 역사와 현황, 동문회 활성화 필요성 및 추진방향, 주요 사업 계획 등을 주요 내용으로 '동문회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국문학에서는 '2007경희대 국

문과 동문회 총회 및 동문한마당 준비위원회'를 발족, 4월 21일 개최되는 홈커밍데이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구체적 논의 시간을 갖고 홈페이지(khgukmun.or.kr)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대학원-이사회장학금, 이사진 확대 논의



대학원동문회(회장 정재규)는 지난 1월 17일(수) 오후 7시 '2007년도 1분기 이사회'를 가졌다. 이 날 정재규 회장을 비롯해 서희석 감사, 김

중섭 총무이사, 홍정표 재무이사, 이충현 연구이사, 홍성언 문화이사, 이영욱 홍보이사, 박혜경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동문회 사업에 대해 정리하고 2007

년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 대학원 동문회에서 2004학년도 2학기에 개설한 동문 장학금과 2006년도에 개설한 외국인 유학생 대상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는 방안과 여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대학원 동문들을 중심으로 이사진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다가올 모교 개교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대학원 동문회 사업을 구상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대학원 동문회의 친목도모와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으로 메일을 발송함으로써 동문들의 동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하였다.

-박혜경 간사-

제주동문회 100여명 참석, 정기총회 시대변화에 발맞추는 동문회로 도약!



제주동문회 (회장 김용이)는 지난 2월 22일 제주 크라운 프라자호텔에서 100여명의 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 2006년 결산, 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김 회장은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여 도움 주는 즐거운 동문회를 만들자"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 날 한명남 총동문회 발전위원장과 김운호 모교 대화협력처장이 참석하여 동문들을 격려했다. 김운호 처장은 "모교는 구성원 모두가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21세기 변화와 창조를 선도할 제 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학문적 수월성을 드

높이고, 평화의 미래사회를 구현하면서, 세계적인 명문사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동문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경희역사의 새 장을 열어가겠다"는 조인원 총장의 축사를 전했다. 한명남 발전위원장은 "모교 발전에 걸맞는 동문회! 시대변화에 맞는 동문회! 젊은 동문들이 참여하는 동문회! 모교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문회!"를 강조하며 "경희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목표를 세워 추진하는 동문회"가 되기를 기원했다.

-김성종 사무차장-

경희대학교 OB 산악회 새 회장에 이기룡 동문

경희대학교 OB산악회는 지난 1월 31일 오후 7시 모교 치과대학 지하강당에서 총회를 갖고 회칙 개정과 임원진을 선출했다. 이 날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그동안 경희산악회로 사용되었던 명칭을 '경희대학교 OB 산악회'로 변경했다. 한편 올해부터 2년간 산악

회를 이끌로 갈 일꾼을 선출, 이기룡(토목 78학번/(현)기린건축 백화점 타일부문 이사) 회장을 선출하고 역대회장 및 공로회원으로 구성된 자문단위원과 세부 임원진을 구성했다.

-곽동현 총무-



파티나라

출장연회 전문 / ISO 9001:2001 인증
www.epartynara.com / eparty@epartynara.com

- 연회/행사 전문가로 구성
- 기획에서 행사 진행까지!
- 창립행사, 동문회, 출판기념회
- 체육대회, 개업식, 집들이

- 출장부페 : 피로연 (교회,성당,야외)
- 체육대회 : 호프부페, 도시락, 야외부페
- 기업체 : 리셉션, 다과회, 커피블랙
- 병원 : 학술대회 커피블랙, 도시락, 리셉션

대표 정 봉 섭 (호텔경영학과 / 호텔 식음료 컨설턴트)

경력 : 웨스턴 조선 호텔, 그랜드하얏트 호텔, 라마다르네상스 호텔 식음료팀 20년 근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3-5 이화빌딩 2층

예약실 : Tel (02)577-3434 / Fax (02)577-3477



의과대학 윤도준 동문회장 취임 제6회 의황대상 권오선 동문



윤도준 동문회장

의과대학동문회는 지난 2월 10일(토) 오후 6시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신입회장에 윤도준(의학72/26회, 동화약품 부회장) 동문을 선출했다.

윤충 전 의료원장, 양용호 전 학장, 유명철 동서신의학병원장, 김진우 학장, 윤해영 각과 개원의

협의회장, 경만호 서울시의사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총 1억 9,2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확정하고 △각종 회의 활성화 △친목 및 유대 강화 사업 △소식 및 정보교류 사업 △장학 사업 및 모교지원 사업 △의학향상 발전사업 등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한편 신입동문환영회를 겸해 제 6회 의황대상 수여식과 감사를 선임, 권오선 박사(75/29회, 美 penn state대)에게 제6회 의황대상을 수여하고 신입 감사에는 조규학 원장(의학70/25회, 부천우리여성병원)과 장성구 교수(의학71/25회, 경희의대 비뇨기과)를 선임했다.

교정학교실-컨퍼런스와 신년교례회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정학교실(주임교수 박영국)과 교정학교실 동문회(경교회, 회장 권기열)와 구강생물학연구소는 지난 1월 20일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 알레그로룸에서 '임상교정 컨퍼런스 및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임상교정 컨퍼런스에서 박영국 교수는 '치과에서의 효과적인 의료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발표하고 자아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자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법을 제시했다. 연구발표에서는 △하악후퇴술과 전진 이부성

형술이 시행된 III급 부정교합 환자의 초진 시 측모두부방사선사진 특성에 관한 연구(김재식 원장) △두개저 기준선이 골격성 III급 부정교합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한동인 원장) △A Study on Friction of Calcium Phosphate Bracket to Stainless Steel Wire(주효진 원장) △Anterior Segmental Osteotomy(ASO)(류명희 원장) 등 내용이 소개되었다. 한편 증례발표에서는 김지웅, 박기호, 전지운, 정민 등 레지던트 3년차 수련의들이 발표했다.

경희 행정인 모임

일시 : 3월 8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소공동 롯데호텔 36층 샤롯데룸

2007 총동문회 신년교례회 200여 동문과 교무위원이 한마음으로



총동문회(회장 박찬법)는 지난 1월 24일(수) 오후 7시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2007년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은 강원도 원주, 대구, 경북 의성, 인천, 수원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200여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희의 새해를 다짐하는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박찬법 총동문회장은 참석한 교무위원과 동문회 고문, 자문위원, 부회장, 이사 등 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모교의 발전에 맞추어 총동문회 또한 발전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모교가 세계 속의 대학으로 발돋움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교 60주년을 앞두고 각종 동문회 사업을 통해 참여하는 동문회를 위해 모교와의 긴밀한 협조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하

고 올해는 경희비즈니스클럽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방송인클럽이나 지역동문회들이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원 모교 총장은 개교 60주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에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 명문으로의 도약을 추구하고 있다며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바탕으로 동문회에 기여하는 모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총장은 전교무위원 워크샵을 통해 대학의 지향할 운영방침을 논의하였고, 총동문회 박찬법 회장과 장현수 자문위원장이 제주도 워크샵 현장을 방문하여 경희의 가치를 국내 최고,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남겼으며 모교는 동문들에게 만족을 주는 세계적 대학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박상동 명예회장은 이 세상을 떠날 때 "괜히 왔다 간 사

람"이라는 말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살자는 덕담을 하였으며,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총재 겸 밝은사회국제클럽총재는 "밝은사회운동은 모교가 모체가 되어 시작된 만큼 세계적인 밝은사회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자 모교 부총장은 최선을 다해 경희대학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테이블별로 상견례가 이루어진 가운데 장현수 자문위원장과 정태류 고문, 차봉오 고문의 건배제 의에 이어 만찬으로 이어졌다.

한편 경희가족의 새해를 축복하는 축가가 박요한(성악87), 박정희(성악82) 동문의 성악으로 진행되었다. 테너 박요한 동문은 아리아 '무정한 마음'을, 소프라노 박정희 동문은 드라마 명성황후 중 '나 가거든'을 부른 후 이중창으로 오페라 춘희 중 '축배의 노래'를 열창, 앵콜 박수를 받았다. 이날 만주는 목은아(기악90) 동문이 맡았다.

이번 신년교례회는 여성동문들의 참여도가 높았으며 각 산하 동문회의 신입회장단의 참석이 두드러졌다. 또 산하동문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젊은 동문들이 총동문회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으며 모교 교직원들도 동문회 행사에 적극성을 보였다. 이날 행사를 위해 서울, 수원 대외협력처 직원들이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촬영 : 모교홍보실 김광순 기자

기독인 동문회-차봉오 회장 연임 백우현 · 윤덕보 공로상 수상



기독인 동문회(회장 차봉오)가 지난 2월 15일(목) 모교 청운관 VIP식당에서 개최되었다. 그 동안 참례되었던 기독인 동문회를 활성화 하고자 30여 명의 경희 울타리 내에 있는 기독인들이 주축이 되어 개최된 모임이었다. 기독인 교수회, 신우회, 그리고 경희 의료원에 재직 중인 기독인들 중심의 만찬회는 1부 예배와 2부 식사 및 회무처리로 진행되었다.

1부 예배는 차봉오(한의53/6회) 회장이 인도하고, 오기호(정외54/6회) 동문은 모임을 위한 대표 기도를 했다. 이종관(철학92/44) 목사는 '남의 아픔을 겪어지면 나의 상처는 회복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노혜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경희 학원 복음화를 위한 동문회가 되기를 강구했다. 특별기도 순서로는 첫 번째

모교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기독인 교수회 회장인 정완용 교수(법학77/28)가 기도했다. 두 번째 김진우(의학69/23) 의과 대학장이 경희 학원장과 신입 총장, 그리고 교직원을 위한 기도를 했다. 세 번째 경희 기독 동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정희 청소년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신 11, 13대 前교회 의원 신진수(정외61/11) 동문이 기도했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동문회 회장 선출 및 총무단 선출이 있었다. 동문회 회장은 만장일치로 차봉오(한의53) 회장이 연임되었다. 이날 백우현(법학61/16회, 前 공주정보고등학교 교장, 2006 총동문회 공로상 수상) 동문과 윤덕보(정외65/20, 경희의료원 행정처장) 동문이 공로상을 수상했다.

-구혜정 학생기자

제55회 졸업동문과 2007학번 신입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문부|

회 장 : 이승우(법2회) (사)이상설선생기념사업회 회장

|문과대학|

회 장 : 이충희(사학56/8회) 前 인하대학교 교수

총 무 : 김완희(사학56/8회) 조은합동관세사무소 관세사

|법과대학|

회 장 : 조선제(법학63/15회) 신성대학 이사장

총 무 : 김종철(법학81/36회) 새서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정경대학|

회 장 : 임진출(정외59/11회) 前 국회의원

사무총장 : 정현주(경영77/29회) 경희대학교 무역학부장

|경영대학|

회 장 : 양한호(상학61/13회) 현대통신(주) 대표이사 사장

사무총장 : 이천화(회계81/37회) 가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호텔관광대학|

회 장 : 박병두(호텔경영80/30회) (주)세계로 대표이사

사무국장 : 김춘보(호텔경영80/33회) 한국산업경영원 대표

|이과대학|

총 무 : 이기태(생물74/27회) 경희대학교 생물학과 교수

|의과대학|

회 장 : 윤도준(의학72/26회) 동화약품(주) 부회장

총 무 : 반건호(의학77/32회) 경희대학교 의대 교수

|한 의과대학|

회 장 : 김 용(한의71/25회) 김용한의원 원장

총 무 : 소재진(한의82/35회) 소재진한의원 원장

|치과대학|

회 장 : 홍정표(치의73/28회) 경희대학교 치대 교수

총 무 : 마경화(치의77/31회) 소망치과의원 원장

|약학대학|

회 장 : 길광섭(약학66/18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상근부회장

총 무 : 김종길(약학81/33회) 서울시약사회 총무위원장

|간호과학대학|

회 장 : 정수정(간호71/22회) 경희의료원 수간호사

총 무 : 이원순(간호79/30회), 정수경(간호76/28회)

|음악대학|

회 장 : 김경태(기악60/14회) 삼오사 대표

총 무 : 신봉주(기악86/41회) 아카데미타악기앙상블

|미술대학|

회 장 : 전영진(미교73/25회) 갤러리인 관장

사무국장 : 이완호(미교84/40회) 드림갤러리 관장

|체육대학|

회 장 : 이종남(체육61/13회) WKF세계이종격투기연맹 총재

부회장 : 권태근(체육61/13회) 前 YMCA 국장

총 무 : 김도균(체육84/40회)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교수

|외국어대학|

회 장 : 이충재(중문80/32회) 천안시의회 의장

|사회과학대학|

회 장 : 유인목(무역79/31회) 테크노빌리지(주) 대표이사

|자연과학대학|

회 장 : 오종민(환경80/33회) 경희대학교 교수

|공과대학|

회 장 : 전익정(건축75/27회) 미 오리건대학 부교수

총무 : 이용택(화공77/29회) 경희대학교 교수

|체육과학대학|

회 장 : 최동호(체육81/33회) 대한상공 관리부장

총무 : 안종석(체육85/37회) 법무사윤주복사무소 사무장

|대학원|

회 장 : 정재규(치의68/22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명예회장

총무이사 : 김종섭(국문77/29회)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장

|경영대학원|

회 장 : 김인식(31기) 신진유지보수 대표이사

사무총장 : 이명식(31기)

|교육대학원|

회 장 : 최병욱 경민고등학교 교장

|행정대학원|

회 장 : 이성근(2기) 한국부동산정책학회 회장

사무국장 : 김양규 법무법인 이우 사무장

|평화복지대학원|

회 장 : 박홍엽(4기)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총 무 : 최창원(24기) 가치리더십센터 대표

|관광대학원|

회 장 : 임영규(국제관광정책학) 대림수산 대표

총무 : 류재숙(관광경영학)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언론정보대학원|

회 장 : 박술용(8기) BSD유통 대표이사

사무총장 : 전규열(2기) 대한생명 고객센터과장

|체육대학원|

회 장 : 성기석(4기) 한국과학마사지협회 회장

총무이사 : 장완성(5기) 경희대학교 스포츠과학연구원

|국제법무대학원|

회 장 : 이만의(2기) 2012여수엑스포유치위원회 상임집행위원

총간사장 : 이재호(3기) 알파인오메가 사장

|테크노경영대학원|

회 장 : 유장식(22기) 평학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사무총장 : 김완래(28기) 윤덕건설 대표이사

|여성동문회|

회 장 : 한경자(작곡64/16회) 전 동일여중 교장

총 무 : 김경순(화학67/19회)

분당·수지지회-광고산 등산모임 건강과 화합 위한 실용적 동문회로 도약



분당·수지지회(회장 양승권)는 지난 1월 27일 광고산에서 등산모임을 가졌다.

“즐겁고 행복한 분당·수지역 경희동문회를 만들자”는 슬로

건 아래 30여 동문이 새해 첫 모임을 갖고 “원로 선배로부터 삶의 지혜를 얻고 젊은 후배로부터 열정과 패기를 받아 건강한 모임을 갖자”며 결의했다.

양승권 회장은 “2007년에는 등산동회 뿐 아니라 골프동회, 탄천걷기동회, 인라인동회, 테니스동회, 마라톤동회, 사이클동회, 마라톤동회, 축구동회 등 생활건강을 위한 다양한 취미 동회를 만들어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할 기회를 만들겠다”며 “지역의 지도자를 우리 동문 중에서, 우리동문의 손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분당 수지 지회는 동문들의 건강을 지키고 화합을 위한 장을 확대, “실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실용적인 지역동문회로 활성화시킨다”는 확신을 갖고 모임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재근 동문-

종로동문회 신년모임 “우정과 의리를 간직한 모임되길...”



종로동문회(회장 고영준)는 지난 1월 27일 일산에 소재한 한정식당 산수림에서 24명의 동문이 모인 가운데 신년모임을 가졌다. 이 날 고영준 회장은 관포지

교의 의미를 전하면서 종로동문회 회원들 모두가 관공과 포숙처럼 서로를 위하고 우정과 의리를 깊이 간직하자고 말했다. 또한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문들 하

는 일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했다. 고영준 회장의 찬조로 준비된 맛깔스런 오찬을 즐거운 담소 가운데 함께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위원회 홍보위원으로 위촉된 공상진동문과 여성동문회장으로 취임한 한경자 동문을 축하하였다.

이 날 모임에는 강원경찰청장을 정년퇴임하고 현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정광섭 동문과 보고예술사진실 대표인 이광순 동문, 한국행정연구원에 재직중인 박흥엽 동문, 동화음향산업 대표이사인 이상혁 동문 등 4명의 동문이 처음으로 참석하였다.

-한기광 총무-

법학13회(61학번) 동기회 고순홍 회장, 유경상 총무 선출



지난 12월 29일 개최된 법13회(61학번) 동기회 송년 모임 겸 정기총회에서 고순홍 동문이 신임 회장에, 유경상 동문이 총무에 선출되었다.

고 회장은 “동기회가 1998년 첫

모임을 갖고 오랜 세월동안 흠어진 동문들이 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한 오세창 전임회장과 이평길 전임총무에게 감사하다”며 취임인사에 앞서 전임회장단의 수고를 강조했다. 고 회장은 “고향산 캠퍼스의 아련한 학창시절과 아름다운 추억을 더듬으며 동문 모두의 영원한 우정을 함께 할 소중한 동문모임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100만원을 법13회 동기회 발전을 위해 회사했다.

-이관홍 동문-

경행회-송재기 회장, 이창흠 총무 선출



경행회(고시출신 공무원 동문모임)는 지난 1월 24일 교대역 부근 ‘참배나무골 오리집’에서 신년모임을 가졌다. 이 날 72학번 최철웅 전임회장을 비롯해서 99

학번 이현주 동문까지 행정고시, 기술고시, 입법고시를 거쳐 공직에 있는 동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동문들은 오리요리를 먹으며 서로의 근황을 전하고 경행회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신임 회장으로 송재기(경제74/26회,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심의관) 동문이 선출되었고 총무로 이창흠(행정87/42회, 행시 40회,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동문이 위촉되었다.

-김태형 전임총무-

작곡과 동문회 신년 첫 모임



작곡과동문회(회장 홍윤식)는 지난 1월 26일(금) 오후 7시 방배동 ‘방배토박이’에서 신년 첫모임을 가졌다. 이 날 동문뿐 아니라 졸업예정 학생들도 참석하여 학교 발전을 위한 동문의 역할에 대해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Home Page : www.koreaip.com

한글도메인 : 특허출원



SUNGAM

성암국제특허법률사무소

■ 업무내용

1.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 국내 및 해외출원
2. 특허·실용신안·상표·의장 감정 및 심판·소송
3. 선행기술조사·상표조사
4. 저작권·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5. 산업재산권 분쟁해결

앞으로 이러한 업무에 대해 자문드릴 기회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SUH INTERNATIONAL PATENT & LAW FIRM

대표변리사	서만규	변리사	전숙현
변리사	이화식	변리사	김혜경(화학39)
변리사	김국선	변리사	조정구
변리사	배성호	변리사	박명흠
변리사	김호중	변리사	조경임

총괄변리사 서경민(경영44회)

직통 : 02-557-4396 H.P : 011-9782-5049

이메일 : kmsuh@sungampat.com

주요거래처 : 삼성SDI / 기아&현대자동차 / 한국타이어 / 동양매직 / 애경산업 / 진로 / 크라운제과 / 한국전력 및 중소기업 500여社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7-64 정안빌딩 3층 Tel. 02-557-4343 Fax. 02-557-8471 E-mail : webmaster@sungampat.com

엄익청 동문의 “숲처럼 푸르렀던 학창시절” 인생의 길잡이 되어준 스승, 멋지네요!



“울창한 숲에서 자연을 벗 삼아 공부했죠. 허허, 신문지 깔고 숲 속에서 공부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전 경희대 남가주 동문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우리학교 동문회보 LA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엄익청 동문(산학 60)은 오랜만에 한국을 찾아 모교를 방문했다.

“우리학교는 예전에도 멋졌지만 지금도 정말 멋지네요. 평화의 전당 높은 탑도 멋있고 대리석 정문도 위풍당당하고.” 그는 숲처럼 푸르렀던 지난 학창시절을 떠올렸다.

“일본의 대학에서 축구전선대회를 하러 오곤 했어요. 그 때 수많은 우리학교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 경희대를 외치던 게 얼마나 재밌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는 우리학교 체대의 위상이 수많은 경희인의 자부심을 높였다고 전했다.

“조영식 학원장님의 조언도 잊혀질 않네요. 제가 경희대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적으로 데모가 일어났어요. 그 때 멋모르고 선배들 따라다니며 데모하고 그랬는데 조영식 학원장님이 학생들을 불러모아 그러시더

라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세계무대로 나아가자고.” 누구나 인생에 길잡이가 되어준 순간이 있다. 엄 동문에게는 조영식 박사의 한마디가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전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미국에 사는 지금도 늘 경희대학교를 나왔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앞으로 우리학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후원하고 이러한 소식을 LA에서 홍보할 계획이에요.” 83년도에 한국을 떠나 LA에 자리 잡은 그는 꾸준히 모교사랑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경희 공로상을 수상했다. 그의 모처럼 만의 한국 방문도 오는 6월 LA에서 개최될 북미주 총회 사전준비를 위해서다.

“제가 장구학당 사물놀이 팀 단장인데 얼마 후에 공연이 있어요. 연습해야 되는데 한국 간다니까 다들 뭐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찌됐어.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은데.” 그는 6년 동안 배워온 사물놀이 외에도 요즈음은 판소리하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고 하며 한국문화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과시했다. “지난번엔 LA한국일보 오피니언을 썼어요. 한인사회가 한국을 잊지 말고 살았으면 해서요. 제가 우리학교를 떠올리며 힘을 얻는 것 처럼요.”

현재 LA한인회 이사를 역임하며 각종 사회단체에서 경희의 이름으로 왕성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는 엄 동문. 사물놀이 한패처럼 신명나고 흥겨운 삶을 사는 그의 모습이 한 광고의 카피라이트를 떠올리게 했다. ‘Enjoy your Life!’ 우리식으로 바꾸자면 ‘Enjoy your Kyung Hee!’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인터넷 Future 경희
강민주 기자

60년대 가요계를 주름잡던 오빠들이 돌아왔다! 자니브라더스 재결합, KBS 특집쇼 출연



1. 해체 35년 만에 재결성을 선언한 '자니브라더스' 김준, 진성만, 김현진, 양영일씨(왼쪽부터)
2. 1960년대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자니브라더스'의 당시 모습(오른쪽 사진)

지난 2월 26일 KBS 특집방송 '방송80년 가요80년'에 자니브라더스가 출연했다. 73년 4월 1일 TBC '쇼쇼쇼 400회 특집' 방송 이후로 35년 만에 처음으로 네 명의 멤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후라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후략)- 6070세대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들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자니브라더스는 '빨간 마후라', '방앗간집 둘째딸', '니가 잘나 일색이냐' 등의 히트곡들로 60년대 가요계를 이끌었다. 남자답고 늠름한 모습과 훌륭한 화음으로 남성 중창단 트로이카의 새장을 열었다. 만능 엔터테이너의 원조격인 자니브라더스는 영화 '빨간마후라'의 삽입곡 '빨간마후라'를 통해 큰 인기를 얻었다. TBC 예능 프로그램 '쇼쇼쇼'에 고정 출연하면서 노래, 춤, 개그를 선보였다.

60년대 소녀팬들의 우상이었던 오빠(?) 들은 중후한 멋을 지닌 음악인으로 우리 곁에 돌아왔다. 자니브라더스의 핵심 멤버로 경희 동문인 양영일(60학번)과 김준(60학번)을 만날 수 있어 영광이었다.

양영일과 김준 두 동문은 경희대 음악학과 60학번이다. 두 동문 모두 '많은 교수님들과 음악계 유명 인사들이 경희대 음악학과를 졸업했다.'고 인터뷰의 운을 떼었다. 평창동의 재즈 클럽을 운영하는 김준

동문은 우리나라 재즈계의 대부로 꼽힌다. 김준 동문은 각종 음악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였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이 좌절되었다고 한다. 경희대 주최 전국 남녀 고교 음악경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면서 경희대 장학생으로 입학 자격을 얻었다고 한다. 반주자가 없어 고생할 때 선배 황선(59학번 現 경희대 음악대학 명예교수) 동문이 반주를 해 줘서 큰 상을 탈 수 있었다고 그 날을 회상했다.

양영일 동문은 해체 후 교직에 있다가 얼마 전 코스모스 악기 부산지점 상무로 재직 중이다. 자니브라더스 공연 준비로 부산과 서울을 오가느라 바쁜 양영일 동문은 어느 때보다 즐겁다고 한다. 자니브라더스는 해체 후 지금까지 멤버들 각자는 다른 문화권에서 음악을 하고 있었지만, 함께 할 수 있는 지금이 너무 좋다고 한다. 6070세대를 위한 TV프로그램이 사라진 시대에 자니브라더스의 컴백이 6070세대의 문화에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해왔다. 자니브라더스 양영일 김준 동문은 오는 3월 12일 KBS '빨간 마후라-자니브라더스 특집쇼'에서 35년만에 단독 무대를 가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김준 동문은 늘 경희 가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했다고 앞으로의 활동 격려해 달라고 했다.

-구혜정 학생기자

<http://neo.khmc.or.kr>

강동구 고덕지구

신개념의 메디컬 허브-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부속병원이 질환별로 새롭게 융합된
新의학으로 21세기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 질환별로 특화된 양·한방 협진시스템 동서협진센터

- 질병 중심으로 특화된 한방센터 한의과대학병원

- 동서의학의 조화로운 건강관리 동서건강증진센터

- 신기술, 신개념의 원스톱서비스 의과대학병원

- 편리와 신뢰의 고품격 치과 서비스 치과대학병원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EAST-WEST NEO MEDICAL CENTER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149번지 5층전 교역역 4번출구
☎ 1577-5800

Everyday Delicious, Everyone Happy...

Make Efforts for Perfectness!

샤니라는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고소한 빵 냄새와 입 안 가득 달콤함을 연상합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빵의 대명사 샤니는 35년간 시대와 업계를 리드해 온 제빵업계 1위의 기업입니다. 샤니는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6년부터 생산현장에 HACC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HACCP는 식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로 원재료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모든 위해요소를 과학적으로 관리합니다. 샤니는 협력업체 정기 방문을 통한 사전 입고 검사와 배합, 발효, 소성, 포장에 이르는 공정 관리는 물론 엑스레이와 금속검출기를 통한 출고검사를 통해 완벽한 제품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HACCP 인증 마크가 전면부에 부착된 샤니의 제품은 안전성과 신뢰도를 보증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노하우로 더 과학적이고 신선한 맛을 만들고 있는 샤니!

열정과 감수성, 창의력을 갖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더 맛있고 더 행복한 세상! 생각만 해도 맛있고, 생각만 해도 즐거운 빵의 천국.

당신을 샤니로 초대합니다.

Delicious Life, Sweet Time



SHANY
we bake goodness!

모교는 지금...



2007학년도 입학식 및 신입생 환영회 자부심과 애교심 고취, 양캠퍼스의 교류활성



2007학년도 입학식이 지난 2월 28일 오전 11시 서울캠퍼스 평화의전당과 수원캠퍼스 노천극장 양 캠퍼스에서 열렸다. 조인원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개교 60주년을 바라보며 학문적 수월성을 드높이고 평화의 미래사회를 구현하여 세계적 명문사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1세기 변화와 창조를 선도할 경희의 또 다른 문화세계를 이룩하자”고 말했다. 박찬법 총동문회장은 “경희가 양성하고자하는 인재는 인류애에 기초한 평화와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세계인이자, 생산적, 실용적, 실천적 지식인이며 포용의 지식인이다”라며 경희정신을 기억하며 유익한 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날 오후

3시에는 ‘2007학년도 신입생 환영회’가 평화의전당에서 열렸다. 이 날 4,500여명의 신입생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애교심을 고취시키고 양 캠퍼스 간 동질감 강화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다. 모교에서는 올바른 경희인상을 소개하고 신입생의 올바른 지향점을 제시했다. 이 날 국가와 세계를 이끌어 온 경희정신과 창학시기부터 현재까지의 경희발자취가 소개되었다. 한편 경희역사 사진전과 포토존이 운영되었다. 모교 예술·디자인과 재학생팀과 박효신 동문을 비롯한 동문 연예인, 모교 응원단의 화려한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사진 : 김광순 기자)

의학계 국가고시 합격률 95% 장현수(한의학), 황은영(치의학) 전공부문 수석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시험과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사법시험에서 우리학교가 95%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제62회 한의사 시험에서는 93.3%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장현수(한의학 2001)군이 전국 수석

을 차지했다. 또한 제 59회 치과 의사 국가시험에서는 82명이 응시해 78명이 합격했으며 의사 시험에서는 126명이 응시해 121명이 합격, 약 96%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치과의사 국가시험 역시 황은영(치의학 2001)양이 전체 수석을 차지했다.

‘고려유물전’ 관람객 3천여명 돌파 모교 중앙박물관 10-17시



‘고려유물전-KOREA로 꽃핀 고려문화의 숨결’이 작년 11월부터 실시되어 3개월이 지난 지금 관람객 3천여 명을 돌파했다. 중앙박물관 측은 “박물관이 지역 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낀다”며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고려유물에 대한 일반 전시가 부족해 이를 공부하는 연구자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관람은 중앙박물관 전시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 문의 : 02-961-0141 / 홈페이지 : museum.khu.ac.kr

경영대학 포럼-산학이 본 2007년 경영의 화두 산학협력 통한 사회 선도적 기능 강화



모교 경영대학(학장 김건우) 교수 60여 명은 지난 1월 15일 리츠칼튼호텔에서 ‘산학이 본 2007년 경영의 화두’라는 주제로 경희비즈니스포럼을 가졌다. 올해 경영 화두는 윤리경영, 감성경영, 유비쿼터스 경영, 컨버전스(융합) 경영 등 4가지로 이 것들을

통합하는 키워드는 ‘유(U·You·柔)경영’이라고 밝혔다. 윤리경영에서 ‘윤’은 ‘유+仁’, 융합경영에서 ‘융’은 ‘유+融’, 감성경영을 대표할 수 있는 한자는 ‘부드러운 유(柔)’자로 표현될 수 있다. 또 영어 U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첫자로 Unify(융합)

첫자에 해당한다. 이 날 강병서 대학원장은 감성적 서비스리더십을 강조했으며 이경전 교수는 사회 구성원의 활동이 연계되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게 될 거라고 말했다. 장영철 교수는 “윤리경영을 통한 지속가능 경쟁력 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포스코 건설 이동만 상임집사가 토론자로 나선 윤리경영 세션에서는 윤리적 문화와 리더십 구축을 다루었다. 경희비즈니스 포럼은 경영대학의 사회 선도적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내부 구성원 및 외부 구성원(기업, 동문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산학협력을 위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으로, CEO-교수 간담회, CEO 특강 등의 여러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교수, 학생, 교직원 참석 ‘학교발전 워크숍’

모교 조인원 총장은 지난 1월 14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에서 ‘학교 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교수,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 대표가 모두 참석하여 구성원간 화합과 기반을 다지고 노사상생 경영관련 특강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박찬법 총동문회장은 특별전세기를

동원해 워크숍 참석자들을 배려했으며 장현수 자문위원장과 함께 워크숍 현장을 방문하여 “경희의 가치를 국내 최고, 세계적 브랜드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워크숍은 구성원간 소통을 통해 투명한 학사행정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개최되었다.

국무총리비서실 직원 사이버교육



박 건 우 총장

경희사이버대(총장 박건우)는 2월부터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을 대상으로 비서실의 기능과 업무특성을 교육내용에 반영한 직무전문 지식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에 걸쳐 개발한 사이버교육 콘텐츠는 업무 특성을 교육내용에 반영해 맞춤형으로 설계한 최초의 직무전문 지식 사이버교육 과정이다.

(www.opm.khcu.ar.kr)

한국학의 회고와 전망 아태지역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아태지역연구원(원장 한상연)은 지난 1월 5일, 6일 양일간 중국 대련(大連) 외국어대학에서 ‘지역학으로서 한국학의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아태지역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한국학

전공교수들의 논문 발표와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날 학술회의를 통해 한국학의 수요에 대해 연구하고, 나라별 한국학 프로그램 현황을 비교 검토해 한국학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계기를 가졌다.

WTF와 함께하는 태권도 훈련

세계태권도연맹(WTF)과 연계한 태권도 훈련 프로그램이 지난 2005년 시작되어 연간 4회 열리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각국에서 한 명씩 선발된 태권도 선수를 WTF로부터 위탁받아 태권도 강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국어, 침술 등의 교육도 이어져 한국의 이미지 쇄신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린이 위한 고지도 특별 체험전 개최 해정박물관서 8월 31일까지



모교 해정박물관(관장 김혜정)은 오는 2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콜립빈과 마조리 바닷길'을

열어라!'는 제목으로 '제7회 어린이를 위한 고지도 특별 체험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지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17~18세기 원본 고지도 20여점이 전시된다.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관람과 더불어 어린이들이 직접 지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지도제작자의 하루'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체험과정을 제공하고 놀이 등을 병행한다.

관람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예약 및 기타문의는 031-201-2013~4 또는 홈페이지(<http://oldmaps.khu.ac.kr>)로 하면 된다.

모교 NGO와 씨티그룹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



모교는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씨티그룹-경희대학교 NGO 인턴십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14만 9천불의 후원금을 전달받고, 올해 초부터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모교는 세계최초로 독립된 NGO대학원을 가진 유일한 대학으로,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NGO인턴십 프로그램의 주관을 맡았다. 씨티그룹은 미국에서 지난 30년 동안 '씨티그룹 지역사회 공헌 인턴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기업이다. 미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기는 우리나라가 처음인데, 그 중 NGO대학원이 존재하는 학교 중 가장 규모가 큰 모교가 선정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단위의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는 점에는 다른 인턴십 프로그램과 차별된다. 모교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과 시민단체가 참여해 이끌어가는 활동이라 규모뿐 아니라 그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보인다.

아름다운가게와 공동 이웃사랑 바자회 개최

동서신의학병원은 아름다운 가게와 공동으로 1월 30일 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이웃사랑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병원 임직원, 유관기관과 아름다운 가게에서 기증한 각종 의류, 잡화 등 5,000여종의 다양한 생활

용품이 판매되었으며, 총 4,000여명이 행사장을 찾았다. 물품 판매를 통해 얻어진 수익금 700여만원은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돼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되었다. 행사 중에 풍선아트, 마술쇼와 미술작품 전시 등이 병행되었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

2007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새내기 새로 배움터'가 각 단과대학 및 학생회 주최로 2월 8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되었다.

'새내기 새로 배움터'는 신입생들이 미리 대학생활을 체험해 보고, 새로운 친구와 교수 및 선

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해졌다.

행사 프로그램은 각 단과대학별로 학교 및 단과대학 소개, 커리큘럼 소개, 장기자랑, 각종 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되었다.

대학원 디자인학과 박사과정 학생들 주한美대사관 저 '하비브 하우스' 방문



모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박사과정 13명의 학생들은 지난 1월 16일 주한 미 대사관 저, 일명 하비브 하우스를 방문, 해외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들에게 미국의 현대 및 고전 예술품을 제공하는 <ART in Embassies Program>을 통해 관저 내에 전시된 미국의 현

대 예술 작품들을 감상했다. 주한 미대사 부인이자 금속 공예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리사 버시바우 여사는 "이 집은 한국의 디자인과 미국의 아이디어가 최상의 조화를 이루고 있다"며 관저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동서신의학병원 '아제르바이잔' 의료봉사 발대식



동서신의학병원(원장 유명철) 40여 명의 의료진은 지난 1월 18일 해외 의료봉사 발대식을 갖고 19일 아제르바이잔으로 의료봉사를 떠났다.

이번 의료봉사에서 중풍뇌질환센터, 척추센터, 심장혈관센터, 소아과, 이비인후센터, 소화기센터와 한의과대학 한방병원, 치과

대학병원 등에서 의료진이 참가했다. 특히 심장병, 당뇨, 고혈압 발생률이 증가하고 혈액순환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은 아제르바이잔 난민의 진료를 위해 심장혈관센터 김종진 교수(의료봉사 단장), 내분비내과 정호연 교수, 소아과 심계식 교수, 정형외과 이재훈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인천 바이오메디컬 허브와 협약



동서신의학병원(원장 유명철)은 지난 1월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동서통합의학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로 인해 인천바이오메디컬허브 구축을 위한 스타 과학자 및 스타기관을 유치하여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구축하게 되었다.

양·한방 종합건강진단 ☎ 02-958-8711~3

▶ 종합건강진단항목

문진(상담), 신체계측 및 혈압측정, 혈액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폐기능검사, 심전도검사, 청력검사, 안과검사, 복부(골반) 초음파, 위장검사, 흉부 X선촬영, 유방촬영, 자궁세포진, 특수혈액검사, 한방검사, 치과검사, 영양상담, 종합판정 및 상담

▶ 정밀건강진단

중풍(중풍A : 150만원, 중풍B : 90만원), 심장(90만원), 소화기(95만원), 여성 중풍(140만원), 여성 정밀(100만원), 숙박 암정밀(남자 : 210만원, 여자 : 230만원), 숙박 PET 암정밀(남자 : 300만원, 여자 : 320만원), 숙박 초정밀(남 : 370만원, 여자 : 395만원)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 경희대 한방재료가공 경희오가피홍삼대보원-홍삼녹용대보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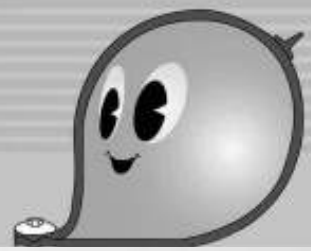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한방재료가공'은 지난 2004년 6월 설립돼 같은 해 9월 교육인적자원부(교육부)로부터 연간 3억원의 지원금을 받는 학교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한방재료가공'은 건강보조식품 '경희오가피홍삼대보원'과 '홍삼녹용대보진액'을 생산하고 있다. '오가피홍삼대보원'은 생체의 기능에 다각적으로 활성을 부여하는 오가피의 기본 성분에 당도를 예방하고, 면역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홍삼

을 비롯하여 여러 생약재를 이상적인 비율에 따라 배합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이다. 이러한 오가피홍삼대보원은 아답토젠 기능(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이끌어주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해주는 기능)으로 전반적 신체 건강유지에 큰 도움을 주는 지품으로 오가피는 학교기업의 부설농장에서 직접 재배된다. 2년여의 연구제작기간을 통해 2005년 12월 출시된 홍삼녹용대보진액은 당뇨, 동맥경화, 고혈압을 예방하는 고려홍삼 성분과 강장 및 면역활성을 증가시키는 녹용 성분을 비롯 여러 생약재를 이상적인 비율에 따라 배합하여 만든 건강보조식품이며, 아답토젠 기능(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이끌어주고, 건강한 사람은 더욱 건강하게 해주는 기능)을 통해 전반적으로 신체 건강유지에 큰 도움을 주는 제품이다.

• 전 화 : 031-201-3657~9
• 인터넷 : khwc3659@khu.ac.kr

YOOIL RUBBERDAM

www.rubberdam.co.kr



(주)유일기연

- ▶ 대표이사 : 이재혁
- ▶ 설립년도 : 1989년 12월
- ▶ 주 소 : 411-722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141-2 유니테크빌 824호
TEL:031) 973-2394 / FAX:031) 973-2399
- ▶ 주생산품 : 고무보 설계, 제작, 시공
- ▶ 기술인증 : INNO-BIZ 인증, 실용신안등록 29건 등록
의장등록 11건, 특허출원 9건 등록



Rubber Dam의 우수성

- 평상시 계획수량을 담수하고, 필요시에는 도복시켜 통수단면적을 최대화하여 보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홍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환경친화적이고, 홍수시 하천범람이 없으며, 수질오염을 방지하며, 유수지를 극소화하고, 퇴적사 준설이 필요없으며, 무인자동운전과 원격조정이 가능합니다.
- 소수력 발전용 상단보, 저수지 여수로 상단보, 유원지 조성용 담수보, 건천방지용 담수보, 상수도용 취수보, 농업용/공업용 취수보 역류방지용 차수보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타 여러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갤러리 리즈는 2000년 11월 11일 북한강이 보이는 강가에 수려한 자연경관을 즐기며 작가와 예술작품, 그리고 관람객이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을 지향하며 개관하였습니다.

대표 김 숙 경
www.galleryliz.com



쾌적, 안전, 편리한 미래환경 앞선 기술과 서비스로 유일건영이 실현 합니다.



건설/플랜트 설비

플랜트 건설 최고의 기술집약체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참여한 오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배관, 기계설치, 설비공사에 완벽한 시공을 보장합니다.



건설/철물, 건축설비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원자력발전소와 각종 철물, 건축설비를 완벽하게 건설, 시공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ISO 9002 인증업체

株式會社 裕一建營

대표이사 회장 이 창 복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438-15, 16번지(유일빌딩 5, 6층)
TEL : 02)581-6850~4 / FAX : 02)581-6855



칼럼

경희, 경희인, 경희전당

전성자(영문61/13회)

한국소비자교육원장, 총동문화 부회장



1. 비전 인큐베이터 경희전당

사람의 자기됨은 교육의 힘입은 바라는 데 이의를 말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좋은 삶든, 크든 작든, 별거든 별거 아니든 지금의 나됨은 모교 경희대학교의 가르침을 덧입은 바라는 점을 소리 크게 말하고 싶은 것이 모든 경희인의 마음일 것이다. 필자도 예외가 아니다. 경희인 입에 대해 누구보다도 작지 않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대 경희의 계보 안에 끼여있는 것이 영예요, 동문록의 울타리 안에 있음이 복이라는 걸 잊지 않는다.

경희 전당은 나예겐 인큐베이터이다.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대책 없는 미숙아였던 여아를 학사로 양육해 준 곳이기엔 경희 전당은 나예겐 조산아 보육기 같은 곳이다. 꿈을 키워주고 계획을 키워준 보육기임에 틀림없다.

2. 과학문명과 정신문화 융합의 묘책

경희는 먼저 인류사회가 어떠한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었다. 이상적 인류 사회란 과학문명과 정신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곳이어야 함을 정의하며 가르쳐 준 곳이다. 건학 이념부터가 이를 강조하고 있다. 과학문명과 정신문화가 서로 뛰어넘지 못할 도량을 사이에 둔 이질적인 상충으로 보던 현대적 시각을 양립해야 할 조화로 터득케 한 가르침이었다.

이 가르침은 30년 전 내가 소비자 운동을 시작할 때 이미 나의 사상적 근간으로 내면에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때는 부족의 시대였고 경제발전 초기였기 때문에 생산자 절대 우위의 시장이 작동하고 있을 때였다. 소비자라는 단어마저도 경제 질서에 등장하지 못했었던 시

기였다. 다만 사회 내부에선 소비자의 억울함을 어떻게 하든 해결해야 한다는 강한 반발만 끓어오르고 있을 때이기도 했다. 성장과 인권, 생산자와 소비자, 시장과 소비자 주권, 등등의 상충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였다. 우선 이 들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파악 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눈을 갖게 된 것도 이 경희 가르침의 힘이었다. 이들을 조화라는 상생의 질서로 안내 해야 한다는 묘수를 발견하게 된 것도 이런 조화의 배움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래서 예방적 소비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소비자 고발과 피해 보상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소비자 문제 예방을 말하기 시작 한 것이다. 이는 것이 소비자의 힘입을 강조해 나갔다. 알고 행동하는 소비자, 그래서 소비자 교육과 안내를 소임으로 하는 한국 소비자교육원을 창립하게 된 것이다.

3. 세계는 일터, 국제화는 일감

경희는 나에게 세계를 바라다보도록 가르쳐주었다. 세계는 경희인의 일터이며 국제화는 일감임을 배워주었다. 건학 이념이기도 하다. 내가 학생이던 그때는 열심히 학교 뺏지를 달았다. 그 뺏지 안에 있는 올리브 잎줄기가 둘러있는 평화세계가 마크였고 그 세계는 경희인의 마음으로 자리했다. 학교의 끊임없는 화두는 평화와 세계이었다.

경희는 세계 평화의 조산원이었고, 평화회의 제안자였으며, 세계 대학 총장회의와 밝은 사회 클럽의 산파였음을 기억한다. 이 가르침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 곧 peace maker로 자라게 했었다. 3학년 때 학교는 나에게 “고운 말 장학생”이라는 너무나도

큰 영예를 안겨 주었다. 성적 우수 장학생보다 더 큰 상을 붙여 주었는데, 당시 다른 학교에선 없었던 제도였다. 고운 말이 평화건설의 가장 첫걸음임을 뇌리에 각인시켜 준 것이다. 굵지 않은 말을 쓸 수 없도록 교육한 것이다.

싸우지 않는 것이 평화라는 수동적 자세보다는 공의를 적극적으로 세워야 평화유지가 가능하다는 능동적 “행동하는 양심” 쪽을 택하게 된 것도 경희 교육의 덕이었다. 소비자 운동은 금세기의 가장 탁월한 창안(invention)이며 현대적 사상운동이란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눈도 경희 전당이 띄어 준 것임을 잊지 않는다.

4. 성심, 성실, 성의의 삶 태도

경희 전당은 나에게 창의를 가르쳐 주었다. 마땅한 일은 하지 않는 것 보다는 하는 게 좋고 할 바에는 전심을 다하여 하고 남보다 먼저 하는 게 좋다는 것이 경희의 가르침이었다. 매사 성심과 성실과 성의를 다할 것을 가르침이다. 줄곧 경희 대학교에는 다른 대학보다 빨리 새로운 학문이 도입 되었으며 그 앞을 기초로 하여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곤 했다. 동서의학의 협진 시도가 세계 최초였으며, 세계 사상을 이끄는 밝은 사회 국제 클럽의 시작, 국제 평화 회의와 평화복지 대학원 등등 전문 연구소들에서 창의와 창안의 훈련들이 이어지고 있다.

내가 처음 소비자 운동을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이 그 일이 무엇을 하는 일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 시작하는 나도 막막해하고 있을 때였다. 그래도 공부할 수 있는 곳은 모교였고 가르쳐 주실 분은 스승 뎁임을 알고, 조영식 총장님과 이원설 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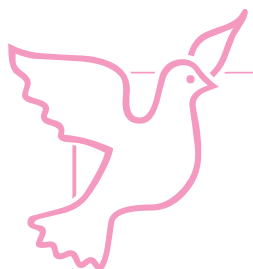
장님의 하교를 받았다. 조 총장님은 NGO의 절대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사회 정의는 반드시 지켜야할 민주사회의 기능이다”고 말씀하시며 “생을 걸어볼만한 가치”라고 말씀해 주셨다. 오랜 세월이 지나고 경희 울타리 안에 NGO대학원이 서게 된 것을 보고나서야 총장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었다. 가르침이란 그렇게 늦게 터득되는 것이구나 싶기도 하다. 그 뒤로 소비자 단체를 이끌고 방송과 사회 교육을 진행하고 이런 일들이 계몽되어 이젠 소비자가 사회 파워로 등장하기까지 긴 시간을 한 길로 나갈 수 있었던 것도 경희 스승님들의 가르침의 힘이었다. 이젠 조금은 자라 행동하는 파워그룹을 이루고, 나라에서도 뜻을 알아주어 훈장 석류장을 내려 주셨으며, 이 사회에 컨수머리즘을 세우는 일의 일단을 맡아 하게 된 것도 경희정신이 힘이였음을 믿고 나아가고 있다. 오늘까지도 40년 가까이 이 원설 박사는 든든한 사부로서 하교를 계속해주시며 학연의 끈을 놓지 않으심에 감사함을 잊을 수 없다. 밝은 사회 본부 여러 선생님들의 지도와 협력도 귀한 경희 전당이 연을 대준 커다란 도움임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5. 경희 인생의 디자인실

이렇듯 경희 전당은 나를 싹 나게 한 배지이었고, 길러준 온상이며, 앞으로도 끝까지 보호해줄 요새가 될 것이다. “경희인” 그 이름은 내 가슴에 달려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빛난 훈장이다. 경희는 그렇게 이름만 들어도 맘 설레는 프라이드이며, 경희인은 경희가 길러준 인성이고 그 디자인실이 경희 전당이다. 경희, 경희인, 경희전당은 나의 자긍심의 핵이다.

사랑하는 경희대 동문 여러분,

[주]화이트결혼정보 가 인사드립니다.



특별한 선택, 특별한 메리트
품격있는 만남과 행복을 디자인하는
노블레스, 전문직 위주의
비공개 성혼전문회사
가입부터 성혼까지 전담매니저제도 진행

명문가, 전문직, 의사, 판검사, 로펌변호사
기업가 자녀 등 엘리트정회원 다수보유
최적의 매칭시스템으로 높은 성혼율 보유

대표 이승주 (기계공학 84)

경희대 동문만을 위한 3가지 특별한 혜택

- ※10%~30% 맞춤형 할인 혜택 제공
- ※성혼시까지 1:1 만남 제공 (선착순 20명)
- ※명문가, 전문직 등 고품격 맞춤 결혼 및 전담 관리

전문직 초혼, 명문가 재혼 전문

WHITE
화이트결혼정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56-9 선우빌딩 3층 (2호선 서초역 1번 출구 우리은행 뒤)

www.whiteinfo.co.kr

상담대표전화 02-584-5445



소식 공급합니다

부주의한 말은 싸움의 불씨가 되며
잔인한 말은 인생을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기 적절한 말은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으며
사랑스런 말은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퍼온 글-



아시아나 인천-파리 노선 주 3회로 증편

◇ 박찬법(정외63/15회, 금호아시아나그룹 항공부문 부회장, 충동문화 회장)

3월부터 주 3회 인천-파리 왕복 비행기를 띄우게 되었다. 이는 한국과 프랑스 정부가 인천-파리 노선 증편을 합의함에 따라 이루어진 성과로 소비자들은 넉넉한 좌석과 항공료 인하, 서비스 개선 등 혜택을 얻게 되었다. 아시아나측은 파리 취항으로 유럽 여행상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평양식료공장 및 방콕 국제어린이재단 방문

◇ 김석산(영문60/12회, 한국복지재단 회장, 충동문화 부회장)



지난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평양을 방문, 한국복지재단의 대북사업인 「만경대 어린이 식료공장」, 「평양 제 2병원」 등을 시찰하고, 2007년도 사업 확장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복지재단은 2001년부터 북한 내 14개 육아원 및 평양 제2인민병원, 제빵공장 설립 등을 지원하여 북한 어린이의 만성적 영양실조 현상의 개선과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의 공급, 의료기술 이전 등으로 무너진 보건 인프라 구축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만경대 어린이 식료공장」의 빵공장에서는 하루 10,000개의 빵을 생산하여 유아원, 유치원 등의 아동들에게 배분해주고 있다. 또,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국제어린이재단 (ChildFund International) CEO Forum에 참석하였다. ChildFund International은 한국복지재단의 전신인 CCF가 중심이 되어 2002년 방콕에서 결성된 전 세계 12개 아동복지기관이 참여한 국제연맹이다. 이번 CEO Forum에서는 이 연맹의 미래발전전략 등이 논의되었다. 또 김동문은 지난 12월 12일(화) 한국복지재단에서 '희망나눔센터 1588-1940' 개소식을 가졌다(사진). '희망나눔센터'는 후원자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복지재단이 한국사회복지기관 최초로 시행한다.

제1회 생명의 신비상 수상



◇ 오태환(모교 노인성 및 뇌질환연구소장)

지난 1월 15일 '제1회 생명의 신비상'을 수상했다. 서울 명동성당 문화관 코스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정진석 추기경에게 '생명과학분야상'을 받았다. 수상 다음날(16일) 오 교수는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기념강연회를 가졌다.

'생명의 신비상'은 지난 2005년도에 인간 생명의 존엄성 수호와 난치병 치료

연구 지원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생명과학 및 인문과학분야에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증진시키는데 공로가 큰 연구자들과 생명 존중을 위해 사회에 헌신한 활동가들에게 주는 상이다. 오 교수는 척수손상치료제에 대한 연구활동으로 생명과학 분야를 수상했다.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 양진석(체육60/12회, 샌프란시스코 코테마데라시 시의원)

지난 2월 7일 세계태권도연맹(WTF)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 양동문은 태권도 공인 7단으로서 미국에서 콜로라도·캘리포니아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했으며 미 공군사관학교 태권도부를 창설하여 미국 내 태권도 보급과 시정에 힘써 왔다. 양동문은 지난 1976년부터 1986년까지 국내에서 주한미군 마약담당 군무관으로 근무했으며 지난 2004년과 2005년 미국 코테 마데라시 시장을 역임하고 2003년부터 올해까지 코테마데라시 시의원으로서 활동한다.

서울종합법무법인 분사무소 개원



◇ 권영상(법학61/15회, 변호사, 충동문화 이사)=최근 서울종합법무법인 분사무소를 개원했다.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9-17
에일팻빌딩 4층
· 전화 : 02-554-4017, 4013

간 이식받은 부친을 위한 모금활동

◇ 김은성(언론정보대학원)=김은성 동문의 아버지는 간암 말기 환자로서 절제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지난 1월 19일 간이식 수술을 받았다. 수술비와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약 1억원이 필요하여 언론정보대학원 동문회에서는 김동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모금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은행 019-21-0778-157
언론정보대학원 사무차장 김윤화)

칠순기념 출판기념회-외길 43년



◇ 김종현(정외55/7회, 전 조선일보 김에디터닷컴 대표, 충동문화 이사)=지난 2월 3일(토) 낮 12시 우이동 그린파크 호텔 7층 카펠

리아홀에서 칠순기념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김동문은 조선일보에 43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신문과 술, 그리고 사람소리 외길 43'년이란 제목으로 산문집을 발간했다.

수원시 권선구청장 취임



◇ 김창규(테크노대학원)=지난 1월 22일 수원시 권선구청장으로 취임했다. 김동문은 균형잡힌 도시개발, 훈훈한 복지실현, 주민우선

일류행정을 구정방침으로 하여 안전하고 균형잡힌 도시기반 구축, 이웃과 함께하는 훈훈한 복지실현,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주민이 주도하는 문화·예술 진흥, 주민과 성과우선의 일류행정실천을 5대 역점 추진시책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美 웬디셔먼과 남북관계 대담



◇ 김춘진(치의70/24회, 국회의원, 충동문화 부회장)=지난 1월 19일 국회에서 대북정책 조정관을 역임한 웬디 셔먼(Wendy R Sherman)과 대담했다. 웬디셔먼은 클린턴 집권 후반기 올브라이트 방북과 북 미사일 합의를 전제로 한 북·미 수교를 추진했던 핵심 인물이다. 이 날 대담을 통해 김동문은 남·북관계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전달했다.

동탄신도시 근린상가 분양



◇ 김해곤(체육74/26회, (주)정일씨앤디 대표이사, 충동문화 부회장)=동탄신도시 근린상가를 20% 저렴하게 분양하고 있다. 이 곳

은 삼성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자리잡은 자족도시로 유동인구가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문은 철저한 상권분석을 통해 1만 4천여 세대 대단위 주거 단지 입주를 돕고 있다. (문의 : 031-889-6161)

SC제일은행 국내 기업부담당 부행장



◇ 박도규(경영76/28회)=최근 SC제일은행 기업금융 총괄본부 소속 국내 기업부담당 부행장으로 영전했다. 박동문은 모교 졸업 후 한

미은행 기업영업추진부장과 인사부장을 거쳐 한국씨티은행에서 인사본부장과 시화기업금융지점장을 역임했다.

경남대 제8대 총장에 재선임



◇ 박재규(대학원, 경남대학교 총장)=경남대 제8대 총장에 재선임되어 지난 2월 7일 취임식을 가졌다. 박

동문은 통일부장관, 한국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동북아대학총장협의회 회장, 윤이상평화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기아차 재경본부장

◇ 안희봉(경제75/28회)=지난 2월 16일 정기인사에서 현대하이스코 전무로 승진했는데 십 여일 후인 지난 2월 27일 기아차의 재무책임자(CFO)로 전격 임명됐다. 안동문은 모교 졸업 후 현대아산 경리팀장과 오토에버 경영관리실장, 현대자동차 감사2팀장 이사 등을 역임했다.

심팩이엔지 상무 승진

◇ 양정보(경영89/44회)=최근 심팩이엔지 상무로 승진했다.

민간언론상담센터 본부장

◇ 오광건(언론정보대학원)=언론중재위 조정심의본부장에서 민간언론상담센터 본부장으로 전보되었다.

부산중고동창회 제정 청조대상 수상



◇ 유명철(모교 동서신의학병원 원장)=지난 1월 24일(수) 재경부산중고동창회 교동창회가 제정한 '제14회 청조대상'을 수상했다. 유원장은 제21대, 22대 재경동창회장을 연임

했으며 '부산고 60년사'를 편찬하는데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의료인으로서 양한방 협진을 통한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베풀어 이웃에게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역사문화연구소 개원



◇ **이석우**(사학60/12회, 모교 명예교수, 총동문회 이사)=모교 사학과 교수, 언론정보대학원장, 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하고 정년퇴임 한 후 '역사 문화 연구소'를 개원했다. 이 동문은 "읽기와 쓰기의 일터이자 지인들이 만나 생각을 나누는 소박한 소통의 장이었으면 한다"며 개원 소감을 전해왔다. 현재 국제미술평론가협회 회원, 영국왕립역사학회 해외 펠로우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역사문화연구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56 포스빌 빌딩 330

· 전화 : 031-274-1760

크리스천연합신문 이사장 취임



◇ **이애라**(법학66/18회, 국제찬양율동신학원 원장(목사), 총동문회 부회장)=3월 4일 CTS 기독교TV의 프로그램인 '성령의 사 람들'에 이애라 목사 간증이 1시간에 걸쳐 방영되었다. 한편 3월 19일(월) 오후 4시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크리스천연합신문 이사장에 취임한다. 이 동문은 크리스천연합신문 창간 10주년 기념식에서 이사장 취임과 더불어 '임원위촉 감사예배' 시간을 가진다.

· 문의 : 02-765-3033(크리스천연합신문사)

KAIST 명예박사 학위



◇ **정문술**(대학원, 전 미래산업 회장)=지난 2월 2일 KAIST(총장 서남표)가 수여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학위는 KAIST 개교 이후 처음으로 기업인에게 준 학위로, 자수성가한 후 재산을 교육과 연구분야에 환원해 기부문화에 모범을 보인 기업인에게 주어졌다. 정 동문은 '기업은 사회의 재산'이라는 신념을 가진 경영자로서 2001년 바이오융합 공학분야의 새로운 학문 개척을 위해 KAIST에 300억원을 기부했다.

주한 중국대사 초청골프



◇ **정재화**(법학61/15회, (주)삼환CY텍스타일 대표, 총동문회 자문위원)=지난 11월 29일 남부CC에서 '주한 중국대사 초청골프' 행사에 참석하여 한일 양국 섬유경기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 베트남 등에 대한 교역조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주한 중국대사, 주한 중국대사관 참사관, 외무부 재외동포영사대사 등이 함께 했다.

총동문회 E-mail

khua2000@hanmail.net
khua2001@hanmail.net

수원유신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정찬민**(체육과학84/36회, 총동문회 부회장)=지난 1월 20일 수원 유신고등학교 총동문회장에 취임했다. 취임식은 수원월드컵경기장 컨벤션홀 부폐식당에서 열렸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주) 대표



◇ **정호희**(토목73/28회, 총동문회 이사)=현대산업개발(주) 상무에서 4월 1일 서울·춘천 고속도로(주)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다.

신한중학교 교장에 취임



◇ **최송빈**(체육교육64/17회, 신한중학교 교장)=지난 2월 8일 평택신한중학교 교장에 취임했다. 최 동문은 취임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중점적으로 교육시켜 갈 내용은 "독서하는 학생, 바른 생활하는 학생으로 키워 나가는 것"이라 밝혔다.

장기요양보장 토론회 개최



◇ **현애자**(식품영양81/33회, 국회의원)=지난 1월 23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장기요양보장제도의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 료 계

구로구한외사회 정기총회

◇ **강현근**(한의81/34회, 구로구한외사회 회장)=지난 2월 2일 한국컨벤션웨딩홀에서 구로구한외사회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주에서 의료봉사

◇ **강우영**(한의75/28회, 경희한의원 원장)=지난 1월 14일 제주 안덕복지회관에서 침·뜸 등으로 한방의료봉사를 했다.

총회서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 **강재만**(한의71/26, 서초구한외사회 회장, 총동문회 이사)=지난 1월 25일 서초구한외사회 제 20회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성의를 모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서초구청장에게 전달했다.

대한전통의학회 학회지 발간



◇ **강진춘**(한의61/14회, 대한전통의학회 주필)=최근 학회지 '대한전통의학' 제5호를 발간했다.

제 1회 테크노경영대상 수상 경영부문 김언식, 혁신부문 이계환 동문



◇ **이계환**(주 유니엔비 대표이사),
◇ **김언식**(DSD 삼호 주식회사 대표이사)
지난 2월 27일 열린 테크노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김언식(최고경영자과정, DSD 삼호 주식회사 대표이사) 동문은 경영부문에서, 이계환(지역개발행정, (주)유니엔비 대표이사) 동문은 혁신부문에서 '제 1회 테크노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첫 수여된 이 상은 테크노경영대학원 동문들 중 탁월한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국가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 경희의 자긍심을 높인 경영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제4대 중랑문화원장 연임

◇ **김 용**(한의71/25회, 중랑문화원장, 한의대동문회장, 총동문회 부회장)



2월 7일(수) 오후 3시 중랑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중랑구 문화원 제9차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에 재임되었다. 김 동문은 한의대 동문회장 겸 총동문회 부회장으로서 후배들에게 장학사업은 물론 모교 발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랑구문화원장으로서 중랑구의 문화를 통해 지역 화합을 추구하고 문화학교 강좌 개설, 상설 문화정보센터 운영, 중랑문화예술 축제 등 각종 예술문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임기 동안 향토사 발간을 위한 자료 조사, 중랑 구민이 참여하는 문예지인 중랑문학 발간 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에드맨 회장 취임,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대사

◇ **공상진**(정외64/16회, (주)에드맨 회장, 총동문회 이사)



최근 (주)에드맨 회장에 취임했다. 이 회사는 전문광고사로서 광고기획, 디자인, 토털사인, 전시기획, 전시디자인, 인테리어, 프로모션,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 OFF-Line뿐 아니라 ON-Line환경에서 종합광고물 기획 및 각 사업부의 전문 사이트(SP사업부(www.silsa.com) SIGN사업부(www.ganpan.com) 커뮤니케이션사업부(www.designswae.com) 전시사업부(www.jeonsid-esign.com) 프로모션사업부(www.hangsa.com))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공동문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추진위원회 홍보대사로 위촉되었다. 한승수 위원장을 비롯한 홍보대사들은 오는 7월 개최되는 'IOC총회'에서 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도록 수고하게 된다. 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 공 동문은 집행부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생명과학 세계 권위-Cell誌 등재

◇ **김효종**(의학76/30회, 경희의료원 내과 교수, 총동문회 이사)



2007년 1월 생명과학분야 세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Cell誌'에 이름을 올렸다. 김교수는 미국 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연구진과 공동으로 연구, 암억제유전자인 PTEN유전자의 발암기전을 규명했다. 'Cell誌'는 생명과학 전반의 완성된 연구결과를 주로 취급하는 학술지이자 세계적인 저널로, 모교의 이름이 게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효종 교수는 "이번 결과를 통해 향후 암 발병기전 및 암 치료제 개발에 응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교수는 1998년 PTEN유전자가 카운텐병의 대장암 발생에 관여한다는 논문을 소화기학의 세계 최고 권위지인 Gastroenterology에 우리나라 최초로 발표한 바 있다.

네이처 등 논문 등재

◇ **임사비나**(한의81/34회, 모교 한의과대학 교수, 총동문회 이사)



지난 2월호에 발표된 침치료의 파킨슨병 예방기전에 대한 연구가 nature.com에 기사화되어 2007년 1월 22일자로 소개되었다. 또 마르퀴스 후즈후, 미국인명연구소와 더불어 세계 최고 권위의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가 발행하는 '21세기 세계 우수 과학자' 창립판(Outstanding Scientists of the 21st Century, Inaugural Edition, 2007)에 등재 되었다.

이 외에 후즈후 인 과학과 기술에도 등재되어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되었다. 임 동문은 과학홍보대사인 과학앰배서더로 활동하며 일반인의 한의학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돕고 있다.



아시아하키연맹 부회장 재선임

◇ 신박제(전파70/20회, 필립스 반도체 회장)

지난 1월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하키연맹(AHF)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에 재선되었다. 이 날 23개 회원국이 참석, AHF 역사상 처음으로 만장일치로 3회 연속 아시아하키연맹 부회장에 연임되었다. 신 동문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단장을 맡아 지원했으며 1998년 대한하키향회장에 취임, 그동안 30여 개의 하키 경기장을 만들어 국제대회 유치와 국제심판 양성에 힘썼다. 현재 (주)엔엑스피 반도체(NXP Semiconductors Korea Ltd) 대표이사 회장,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한편 패션 전문가 8인이 뽑은 옷 잘입는 CEO에 '베스트 드레서'로 선정되었다. 색깔이 뛰어나 넥타이와 와이셔츠를 잘 맞춰 입는 데다 유럽풍 감각으로 트렌디한 슈트도 고급스럽게 소화해낸다는 평을 받았다.



3월 11일 카메라타 정기연주회

◇ 최영철(기악75/27회, 카메라타 서울 음악감독 겸 상임지휘자, 한국첼로학회 회장, 충동문화 이사)

오는 3월 11일 오후 8시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카메라타 서울 첼로 앙상블 제 15회 정기연주회를 가진다. 이번 연주회에는 최영철, 고선옥, 이정아, 황승현 동문들이 협연한다. 카메라타 서울 앙상블은 최 동문이 1994년에 창단했으며 정통 클래식 연주는 물론 갤러리 콘서트, 병원 로비 음악회, 소외 지역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 지금까지 40여회의 연주회를 가졌다. 특히 첼로 앙상블은 한국첼로학회(www.cello.or.kr)의 각종 연주와 교육,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제 첼로 클리닉을 개설하여 일본 등 외국과 광통신망을 이용한 화상교육으로 첼로 연주자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독일 자르란트 주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페스티벌 Musik Saar 초청으로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의 순회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한국첼로학회의 첼로아카데미(www.celloacademy.com)와 첼로소사이터티 다음 카페에는 전 세계에 걸쳐 9천여 회원이 있으며, 3천여 전공자와 6천여 아마추어가 서로 교류하며 각종 연주와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의학한림원 정회원 선출

◇ 김영설(의학67/21회, 경희의료원 내과교수)

내분비질환 및 비만, 지질, 당뇨병 분야의 연구의 업적을 인정받아 의학한림원 정회원으로 선출되었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지난 2004년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창립된 기구로 약 247명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 선발기준은 1980년 이전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연구경력 20년 이상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내외 전문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학술저서 실적, 학술지 편집활동 등 순수한 학문적 업적만을 심사대상으로 한다. 김 동문은 경희의대 부속병원장, 대한 내분비학회 이사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보건복지부 연구인 제2형 당뇨병 임상연구센터의 총 책임연구자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자동차안전학회 초대회장에 선출

◇ 백영남(모교 기계공학과 교수)

지난 1월 23일 자동차안전학회 초대회장에 선출되었다. 자동차안전학회는 국내 자동차 전공 교수들과 자동차 제작사 전현직 임직원, 관련 연구소 임원 등 자동차 안전분야 전문가들이 자동차 안전정책 및 기술 분야를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출범시켰다. 이 학회는 국익을 대변하는 정부 차원의 학문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국제첨단자동차안전학회(ESV)에서 거론되는 자동차 안전에 관한 기술 및 안전기준 개발 동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국내 자동차 리콜, 신차 안전도 평가 및 자동차안전 정책의 수립을 위한 자문 및 건의, 자동차 안전관련 학술발표회 등을 통해 정부의 자동차 안전 대책 자문 기구 역할을 맡는다.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상

◇ 홍충선(전자공학79/31회, 모교 전자공학과 교수, 충동문화 이사)

최근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상을 수상했다. 이 학회는 한국정보과학회, 한국통신학회와 함께 국내 3대 IT관련 학회 중 하나로 매년 연구 실적과 최근 5년 동안의 논문을 중심으로 학술대상을 시상한다. 홍 동문은 와이브로(무선휴대인터넷)와 센서 네트워크 분야를 연구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본격적인 산학 협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양천구한의사회 정기총회

◇ 김대성(한의85/38회, 양천구한의사회 회장)=지난 1월 15일 방송회관에서 서울시 양천구한의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예산 수립과 학술세미나 등 공개강좌를 통한 보수교육에 대해 논의했다.

강서구한의사회 이사회



◇ 김영권(한의81/37회, 강서구한의사회 회장, 충동문화 이사)=지난 1월 30일 강서구한의사회 이사회를 열고 세입세출결산 및 대의원선출심의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10명의 중, 고등학생에게 '제2회 허준 장학금'을 전달했다.

여한의사회 중앙이사회 개최



◇ 김영숙(한의77/30회, 대한여한의사회 회장)=지난 2월 8일 여한의사회 회의실에서 제5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서 △기획세미나, △의료봉사활동, △지부 연석회의, △여한의사회장배 골프대회, △홈페이지 안정화, △명예회장단 모임 등의 신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정하고 오는 3월10일 한의협회관에서 중앙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오는 4월 8일에는 가톨릭의대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정안요법(안면성형침)'을 주제로 제2차 기획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중국서 약용식물탐방

◇ 김인락(한의77/30회,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 대한본초학회 회장)=지난 1월 27일 대한본초학회 회원들과 함께 중국 해남도 약용식물탐방을 했다.

대한한의학회 운영이사회



◇ 김장현(한의74/27회, 대한한의학회 회장, 충동문화 이사)=지난 1월 30일 한의학회회의실에서 대한한의학회 운영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날 신년도 사업과 예산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한의사회 정기이사회



◇ 김태윤(한의79/32회,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지난 1월 20일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정기이사회를 개최, FTA 대응방안 및 총회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남구한의사회 회보 발간



◇ 김현수(한의80/33회, 강남구한의사회 회장, 충동문화 이사)=강남구한의사회 회보를 발간하여 회무경과 및 회원 동정을 게재하여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광주광역시한의사회 이사회

◇ 문석재(한의70/23회, 광주광역시한의사회 회장)=지난 2월 7일 광주광역시한의사회 2007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송파구한의사회 정기총회



◇ 박상백(한의77/30회, 서울시 송파구한의사회 회장, 충동문화 이사)=지난 1월 16일 교통회관에서 송파구한의사회 제2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날 예산 책정과 중앙회장상, 서울지부장상, 분회장상 등을 수여하고 중앙·지부대의원을 위촉했다.

대한사상체질의학회 정기총회

◇ 박성식(한의83/36회, 대한사상체질의학회 회장)=지난 2월 10일 셰라톤워커히 호텔 컨벤션센터에서 대한사상체질의학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4월까지 아우르베다 특강

◇ 박종운(한의81/34회, 부천 경희오피스한의원장)=1월 21일부터 4월까지 3개월에 걸쳐 총 6회의 아우르베다 특강을 연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장소는 서울역 KTX역사 4층 대회의실이다.

(문의 : 032-328-8075)

대구한의대와 대구의료원 산학협동



◇ 변정환(한의55/8회, 대구한의대학교 총장, 충동문화 자문위원)=지난 2월 5일 대구한의대와 대구의료원과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했다. 의료정책 개발, 의료서비스 경쟁력 활성화 등을 위한 산학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용하게 되며 대구의료원은 학생들에게 현장 교육 장소 및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전남한의사회 지부장

◇ 선종욱(한의81/34회)=2월 3일 전남한의사회 총회에서 지부장에 선출되었다.

대한배구협회로부터 특별공로패



◇ 송기산(한의61/14회, 충신한의원장)=지난 2월 6일 대한배구협회 정기총회에서 30년간 배구협회 의무위원과 위원장으로서 협회를 위해 수고한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공로패를 수상했다.

저소득층 자녀 학습지원 2천만원



◇ 신준식(한의82/35회, 자생한방병원장, 충동문화 부회장)=지난 2월 8일 사회복지법인 우리누리와 후원 결연을 가졌다. 자생한방병원은 우리누리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마련한 'I-미래 공부방' 증설 사업을 위해 2천만원을 쾌척했다.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이사회



◇ 안규석(한의69/22회,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원장, 모교 한의대 교수, 총동문회 부회장)=지난 1월 31일 힐튼호텔 코탈룸에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제2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매주 수요일, 안면마비 관련 교육



◇ 안창범(한의65/18회, 동의의료원 한·양방협진센터 소장)=매주 수요일 안면마비(구안와사)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에 '안면마비의 이해와 치료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방병원협회 정기총회 개최



◇ 이경섭(한의66/22회, 강남경희한방병원장,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 총동문회 부회장)=2월 22일 오후 5시 소공동 롯데호텔 에 메탈드홀에서 '제21회 한방병원협회 정기총회'를 개최, 신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종로구한의사회 정기총회 개최

◇ 이동진(한의70/23회, 종로구한의사회 회장)=지난 1월 30일 종로구한의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예산을 책정하고 추진사업을 결의했다.

배구협회로부터 표창패 수상



◇ 이환성(한의85/39회,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부회장)=2월 6일 개최된 대한배구협회 정기총회에서 남자 월드컵 국가대표팀 팀닥터를 비롯해 각종 대회 주치의로 활동한 경력을 인정받아 표창패를 수상했다.

전국병원홍보협회 회장



◇ 임종성(경제83/39회, 경희의료원 홍보팀 계장)=지난 1월 16일 전국병원홍보협의회 제9대 회장에 선출되었다.

교사대상 건강강의

◇ 정지행(한의84/37회)=지난 1월 2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전국 초·중·고 교사 대상 '경제와 문화체험' 교육에서 '스트레스와 비판'을 주제로 강의했다.

日 도야마대학과 한·일 연구협력



◇ 채한(한의89/42회, 대구한의대학교 교수)=지난 1월 12일부터 25일까지 일본을 방문, 일본 도야마 대학에서 한의학 및 사상의학을 소개했다. 도야마 대학과 대구한의대학은 지난 2005년 4월 '제1회 한·중·일

동방의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한·일간 연구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대구한의대학에서 과전된 채 동문은 도야마 대학 의학부학과장 한·일간 연구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채 동문은 지난 2003년 자신의 논문 '개별화된 의학을 향한 대안적 방안 : 사상 분류학의 심리적·육체적 특성'을 전문학술지 '대체·상보(相補)의학 저널(Journal of Alternative&Complementary Medicine)'에 게재하여 사상의학의 과학성을 입증한 바 있다.

동서의학의 협력 컨퍼런스



◇ 최승훈(한의75/28회, WHO서태평양지역 사무처 고문)=지난 2월 9일 '동서의학의 협력(교육, 연구, 임상 분야)'이라는 주제의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음악회

해외원조기금마련 희망음악회



◇ 김신자(성악60/12회,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 채승기(성악84/36회, 세종대 출강)=지난 1월 18일(목) 오후 8시 금호아트홀에서 열린 <해외원조기금마련 희망음악회>에서 오페라곡을 불렀다. 이날 은종선(기악95/49회) 동문은 색소폰으로 협연했다.

테너 박요한 독창회 1월 28일



◇ 박요한(성악87/40회)=1월 28일(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에서 독창회를 가진다. 박 동문은 이태리,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지에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라보엠, 마술피리, 말타타 등 오페라 주역가수로 인정받았으며, 국내에서도 오페라 아이다, 투란도트, 심청전, 이순신, 정조대왕 등의 오페라에 주역으로 출연했다. 이태리 까쉬나, 베스까라, 마리오 란차 국제 콩쿨 등에서 입상했으며, 움베르토 조오르다노 국제콩쿨에서는 특별상을 수상했다. 현재 일본 후지와라 오페라단 정단원이며, 국내외 콘서트 및 오페라 가수로 활동 중이다.

영산아트홀에서 독창회



◇ 왕광열(성악91/46회)=3월 2일(금) 오후 7시 30분 영산아트홀에서 독창회를 갖는다. 왕 동문은 콩쿨인 스페인 빌바오 콩쿨에 3위, 잔 바티스타 비웃띠 콩쿨 특별상, 리카르도 잔도나이 2등, 밀라노 라 무지카 에비파 콩쿨 1등, 레나노 싸비아도로 콩쿨 1등 없는 2등, 로카델레 마치에 콩쿨에서 3등, 발세지아 비웃띠 콩쿨 3등, 로어로 인 무지카 콩쿨 2등 등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국제학술회의서 학술상 수상



◇ 김정태(모교 토목건축대학 교수)

이태리 비첸차에서 열린 '2006 지속가능 에너지 기술 국제학술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SET(Sustainable Energy Technology) 2006)에서 학술상(Certificate of Academic Achievement)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 해 동안 연구 성과가 뛰어난 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 5년간 김교수가 채광조명시스템연구실 소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 연구소에서 100여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김교수는 모교 산학협력기술연구원장직도 맡아 일하고 있으며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정기총회 차기회장으로 선임, 2008년에 개최될 제8회 지속가능 에너지기술 국제학술회의 조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명문대학인 노팅엄대학교 건축대학과 건축환경분야의 석사과정에 공동학위프로그램(Joint Degree Program)을 계획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두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하고 논문을 통과하면 양쪽 학교에서 동시에 학위를 받게 된다.

한림대 총장 취임



◇ 김종수(모교 아태국제대학원 교수)

지난 2월 14일 일송아트홀에서 '제6대 한림대 총장 취임식'을 가졌다. 김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조세연구원장, 제11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정부 기관(청와대 경제비서관, 재경원 장관 특보), 중앙교육심의회 연구위원, 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위원,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모교 아태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했다. 주택정책, 노동시장, 인적자원 개발, 거시경제, 세계경제 분야의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현재 대통령직속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와 제2기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이덴티티 디자인 제작



◇ 김형석(모교 시각정보디자인 전공 교수)

모교에서 '아이덴티티 디자인' 강의를 통해 실제 사회단체 선정부터 심벌마크, 로고타입, 각종 응용 디자인 시스템 및 홈페이지까지, 학생들로 하여금 해당 단체의 CI디자인을 제작하도록 돕고 있다. 2005년에는 안익태 기념재단, 대학생 선교단체 등 3개 단체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무료로 제작했으며 2006년도에는 국어단체연합, 굿 네이버스의 '100원의 기적', 녹색연합 등 16개 사회공익단체의 CI(Corporate Identity)를 디자인했다.

토지공사 주최 제안공모전서 금상



◇ 양현식(경대원)

최근 토지공사에서 주최한 제안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고객들의 민원내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나아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민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자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양 동문은 이번 공모전 뿐 만 아니라 한전 사내 공모전에도 참여해 이미 두 번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고석규 비평문학상 수상



◇ 고봉준(대학원)

계간 <오늘의 문예비평>이 주관하는 제12회 고석규 비평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오는 4월 중순, 시상식과 함께 상금 100만원을 받는다. 수상작은 '반대자의 윤리'(실천문학사)로, 이 책은 97년도부터 써온 평론을 모아 묶은 책이다. 고 동문은 2000년 서울 신문에 등단했으며 현재 '작가와 비평'이라는 문학잡지에 평론을 게재하고 있다.

치과의사 국가시험 전국 수석



◇ 황은영(치의01/55회)

지난 1월 19일 실시된 '2007년도 제59회 치과의사국가시험'에서 전국 수석을 차지했다. 황동문은 "원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고 희망했던 직업도 갖게 돼 행복하다"며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치과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졸업 후 모교에 남아 계속 수련의 과정을 할 예정이라 밝혔다.



포근한 선율의 모던록 사운드 방송횟수 1위 차지하기도

◇ 최예나(본명 : 최민경, 경영99/51회, 가수)

SBS '인기가요'를 통해 데뷔한 후 라디오 '하하의 텐텐클럽', '별이 빛나는 밤에', '노홍철의 기쁜 우리 젊은 날' 등 방송과 라디오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최 동문은 지난 가을, 방송음악 모니터링 전문 사이트 에어모니터에서 방송횟수 1위를 차지하여 주목을 받기도 했으며 모던록풍 사운드를 담은 자신의 앨범 '하드코어 로맨틱(Hardcore Romantic)'로 가요계에 첫 선을 보였다. 앨범 타이틀 곡 'My Dear'는 여성적이면서도 포근한 선율의 모던록 사운드가 특색이라는 평을 받았다. 그녀는 싱어송 라이터가 되길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인디밴드와의 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한의사국가고시 수석합격

◇ 장현수(한의01/55회)

제 62회 한의사국가고시에서 수석합격했다. 장 동문은 학창시절 사상의학에 푹 빠져 살았으며 "사상의학과 임상학의 접목을 통해 한의학의 정신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체형과 외형을 진료하는 것 뿐 아니라 마음을 임상에 적용하는 사상의학의 일면에 관심이 많다는 장현수 동문은 '동의수세보원'을 보며 의학의 도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경희의료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사상체질의학과를 전공할 예정이며 장래의 꿈은 공부한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후학양성에 힘쓰는 교수가 되는 것이다.

한국성악회 정기연주회서 지휘



◇ 홍윤식(작곡69/21회, 양주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충동문화이사)=지난 2월 20일(화) 영산아트홀에서 열린 '제 108회 한국성악회 정기연주회'에서 솔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이 날 20여명의 성악가들이 오페라 중창을 중심으로 열창했다.

전 시 회

갤러리드림에서 개인전

◇ 홍재연(미술67/19회, 경기대학교 회화과 교수)=2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인사동 갤러리드림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방송 · 연 예

일본에서 8번째 앨범 발표



◇ 강산애(본명 강영걸, 한의82, 가수)=8번째 앨범을 일본에서 발표했다. 'SANEH(산애)'라는 자신의 이름을 붙인 싱글앨범으로 '코메디', '와그라노' 등 4곡을 새로 편집해서 실었다.

새로운 느낌을 주기 위해 보컬의 창법에 서부터 사운드까지 재작업을 거쳤으며 일본의 3인조 댄스그룹 '윈즈'가 소속된 기획사 '포니캐년'과 함께 본격적인 프로모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동문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SBS '사랑에 미치다' 출연



◇ 김은주(연극영화과, 탤런트), ◇ 윤계상(포스트모던음악과, 가수 겸 배우)= 2월 첫 방송된 SBS TV 주말 드라마 '사랑에 미치다'에 출연하고 있다. 김은주 동문은 성공을 위해 사랑하는 남자(윤계상)를 버리는 민희역을 맡고 윤계상 동문은 결혼식 당일 자동차 사고로 연인을 잃은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 주인공으로 출연한다. 김동문은 MBC 드라마 '여우야 뭐하니'에 출연했으며 윤동문은 군 입대 전 SBS 드라마 '형수님은 열아홉'에 출연했다.

'아시아 최고 신인상' 수상



◇ 박유천(가수, 동방신기-믹키유천, 포스트 모던학과), ◇ 심창민(가수, 동방신기 -최강창민, 포스트 모던학과)=지난 1월 31일 방콕에서 열린 '시드 어워드'에서 '아시아 최고 신인상'을 수상했다. 올해 2회를 맞은 '시드 어워드'는 태국 시드 TV와 시드 FM, 채널 9가 공동 주최한 시상식으로 총 16개 부문에서 시상하는 대규모 대중음악시상식이다.

DHC광고 출연



◇ 윤은혜(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탤런트, 가수-베이비복스, 탤런트)=심플하면서도 라인이 돋보이는 블랙컬러의 그레스와 긴 뱅헤어스타일을 드러내며 고급스러움을 연출

한 DHC광고에 출연, 2월부터 TV전파를 타고 있다. DHC 화장품은 천연 성분을 주성분으로 노화피부나 민감 피부, 브라이팅 등 목적별로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포크음악 공식 웹사이트 개설



◇ 윤형주(의학68, 한국포크송협회 회장, 가수)=한국 포크음악 40주년을 기념해 공식 웹사이트(www.folksong.or.kr)를 개설했다. 이 사이트에는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발표된 각종 한국 포크 음반에 관한 정보와 각종 자료가 들어있다. 올해는 40주년 관련 기념행사를 다양하게 주최할 예정이다. 10월에는 '2007 코리아 포크송 페스티벌'을 열고 11월에는 세상을 떠난 포크 가수들의 추모 공연을 할 예정이다. 윤동문은 1968년부터 '트윈 폴리오'라는 이름으로 가수로서 방송 활동을 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크음악 가수이다.

월드비전 에이즈 홍보대사 베를린 국제영화제 특별상 수상



◇ 정지훈(가수 비, 포스트모던음악과01/54회)=월드비전 에이즈 홍보대사로 위촉되어 '에이즈 없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정동문은 올해 6월까지 12개국 대상으로 열리는 '레인 월드투어-레인스 커밍' 무대의 공연수익금 일부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정동문이 출연한 영화 '싸이보그지만 괜찮아'는 지난 2월 17일 제57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특별상인 알프레드 바우어상을 수상했다. 알프레드 바우어상은 베를린영화제 8대 본상 중 하나다. 한편 정동문은 지난 2월 중순부터 LG생활건강 남성화장품 '오후 포맨' 광고에도 출연하고 있다.

한의원 개원

◇ 김구영(한의84/37회)

서울 병민한의원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42-14번지 2층
전화 : 02-582-9075

◇ 김대현(한의97/52회)

부산 고관한의원
부산 동구 수정2동 57-1번지 2층
전화 : 051-468-9700

◇ 김동수(약학86/39회)

경남 한보당한의원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청리 168-8
전화 : 055-973-5730

◇ 김영신(한의78/31회)

서울 경희김영신한의의원
서울 강서구 등촌3동 717번지 그레이스힐 별관 2층
전화 : 02-2668-7569

◇ 김은진(한의54/7회)

경기 보경한의원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80-6번지
전화 : 031-251-7582

◇ 김종원(한의68/21회)

서울 김종원한의의원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1 운천 청구 아파트 상가 301호
전화 : 02-948-5522

◇ 김진태(한의84/37회)

서울 경희제한의원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110-21번지 2층
전화 : 02-848-7711

◇ 김철배(한의84/38회)

서울 참경희한의의원
서울 강서구 방화1동 569-17번지 2층
전화 : 02-2064-1004

◇ 김흥국(한의67/22회)

경기 경희한의의원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메인세네마타워 4층
전화 : 031-591-1101

◇ 박광수(한의61/14회)

서울 박광수한의의원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79-107번지
전화 : 02-945-8822

◇ 박재운(한의93/47회)

서울 경희한나무한의의원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234-7 바위빌딩 3층
전화 : 02-422-1075

◇ 박정훈(한의96/49회)

서울 경희푸른한의의원
서울 도봉구 창4동 10-3 세정빌딩 403호
전화 : 02-900-7988

◇ 박진웅(한의85/38회)

서울 서도한의의원
서울 용산구 이촌1동 302-52 LG상가 308호
전화 : 02-797-7533

◇ 선우윤식(한의82/37회)

경기 경희당한의의원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1377번지 센타프라자 205호
전화 : 031-447-8275

◇ 신광호(한의80/33회)

서울 연승한의의원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6-20 화남빌딩 3층
전화 : 02-543-7575

◇ 신호철(한의59/12회)

서울 동신방한의의원
서울 동대문구 제기1동 1144-1번지
전화 : 02-959-2355

◇ 안덕균(한의60/17회)

서울 뉴트렉스 한의원
서울 강남구 논현2동 241-3번지
전화 : 3014-9616

◇ 양기상(한의60/13회)

부천 신내경희한의의원
경기 부천시 소사구 신곡본동 541-22
전화 : 032-653-2211

◇ 양명삼(한의98/53회)

서울 행복한경희한의의원
서울 용산구 이촌동 203-60번지
전화 : 02-719-7776

그룹 임원 승진 동문

〈한진〉

◇장완수(전자공학69/25회)=대한항공 상무A-운항점검정비공장장

〈롯데〉

◇김호균(행정71/23회)=롯데건설 전무

〈삼성〉

◇심상필(전자공학78/33회)=삼성전자 상무-무선 상품기획팀 담당임원

◇장승철(전자공학82/34회)=삼성전자 연구위원 (상무)-무선 개발팀 담당임원

◇배일성(전자공학78/31회)=삼성전자 연구임원 (상무보)-SYS.LSI Image개발팀 담당

◇장의영(기계공학81/33회)=삼성전자 연구임원 (상무보)-생활가전 냉기개발팀 담당임원

◇이상표(기계공학79/31회)=삼성전자 상무-인사팀장

◇이경우(전자공학75/31회)=삼성 SDS 상무보-ITO서비스센터장

◇배찬희(기계공학78/30회)=삼성중공업 상무보-경영기획팀장

◇이경훈(화학공학77/32회)=삼성석유화학 상무보-서산공장장

◇박기석(화학공학73/25회)=삼성 엔지니어링 부사장-화공플랜트본부 부부장

경찰동문 인사이동

◇김사웅(법학74/29회)=충경, 경기도 양주 경찰서장

◇김충곤(법학74/29회)=경정, 경찰청 보안3과

◇박종환(법학72/24회)=치안감, 충북경찰청장

◇오영호(법학77/30회)=경정, 서울 서부 경찰서

◇이 윤(법학74/29회)=충경, 광주 남부 경찰서장

◇최정우(행정85/40회)=경감, 충남 서천 경찰서 청문 감사관

◇오정석(한의95/49회)

오정석경희한의원

서울 송파구 삼전동 6-7번지 수충빌딩

전화 : 02-425-4250

◇유명숙(한의72/25회)

서울 압구정함소아한의원

서울 강남구 논현2동 62 조일빌딩 4층

전화 : 02-549-1018

◇이 철(한의84/48회)

인천 경희무릎한의원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439-19번지

전화 : 032-526-7588

◇이한영(한의78/31회)

경북 해성한의원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리 34-4

전화 : 054-292-4555

◇이현삼(한의89/42회)

서울 오성당한의원

서울 중구 죽림동 335 브라운스톤 208호

전화 : 02-381-9933

◇장원만(한의88/41회)

경북 태을양생한의원

경북 구미시 황상동 314-20번지

전화 : 054-473-2363

◇장태수(한의74/27회)

경기 장태수한의원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590-16번지 해강빌딩 3층

전화 : 031-576-1003

◇정행규(한의80/33회)

서울 본디을 흥제한의원 서초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34-5 코스모빌딩 1층

전화 : 02-3472-1290

◇조남인(한의80/33회)

서울 경희해성한의원

서울 강동구 암사3동 450-14번지 2층

전화 : 02-442-6674

◇조성우(한의95/49회)

충북 경희맥한의원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20번지 4층

전화 : 043-231-7588

◇최문정(한의95/49회)

서울 상암경희한의원

서울 마포구 상암동 333-1호 상암타워클리닉 301호

전화 : 02-303-9075

◇최보희(한의86/39회)

서울 하나그린한의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85-1 동아빌딩 302

전화 : 02-3444-7582

◇추성호(한의96/49회)

경기 강&추한의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5-5번지 밀레니엄프라자 312호

전화 : 031-206-2471

◇하 늘(한의02/54회)

서울 압구정하늘한의원

서울 강남구 압구정1동 455번지

전화 : 02-3448-1020

◇허성식(한의91/47회)

서울 경희해모아한의원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999 아이파크몰 지하 1층

전화 : 02-2012-0321

혼 인

◇권세혁(법학61/13회, 코리아능력개발원 원장, 총동문회 이사)=2월 28일(수) 오후 7시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삼녀 정은씨 혼인

◇김상수(정외64/16회, 호남환경감시단 총재)=2월 3일(토) 오후 12시 10분 전주 웨딩캐슬 2층 로즈메리홀에서 차남 민권씨 혼인

◇김주형(법학68/20회, 변호사, 총동문회 이사)=2월 3일(토) 오후 5시 삼성동 공향터미널 예식홀에서 장안 성환씨 혼인

◇배대한(상학60/12회, 승림문화사 대표)=1월 27일(토) 오후 1시 남산자유센터웨딩홀에서 장녀 지영씨 혼인

◇윤윤섭(경영61/13회, 대양산업기계(주), (주)서원파이프 대표이사 회장, 총동문회 부회장)=2월 24일(토) 오후 1시 목화예식장에서 막내딸 정은씨 혼인

◇이일현(의학70/24, 중앙의원)=2월 10일(토) 오후 4시 보라매공원 부근 은석교회에서 장녀 지은씨 혼인

◇이재준(의학96/50회, 인하대병원 재활의학과)=2월 3일(토) 오후 5시 30분 강남 JW메리어트호텔 5층 그랜드볼룸에서 혼인

◇이학봉(경제68/20회, (주)화신폴리텍 대표이사, 총동문회 이사)=2월 9일(금) 오후 6시 노보텔 엠배서더 호텔 샴페인홀에서 딸 지원씨 혼인

◇정자용(모교 생활과학대학 교수)=1월 20일(토) 낮 12시 JW메리어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혼인

◇주동준(모교 이과대학 교수)=1월 20일(토) 낮12시 천주교 압구정 성당에서 장남 영민씨 혼인

부 음

◇강상길(의학75/29회, 파주제일의원)=1월 25일 모친상

◇권동원(의학72/26회, 한우리의원)=1월 22일 모친상

◇김순희(의학78/32회, 새한노인전문병원)=1월 29일 작고

◇김승원(의학69/23회)=1월 10일 빙부상

◇김원옥(간호68/20회, 모교 간호과학대학 학장, 총동문회 이사)=2월 14일 모친상

◇김정철(사학73/25회, 영광여자고등학교 교사)=1월 1일 모친상

◇김철원(모교 호텔관광대학 교수)=2월 13일 부친상

◇박기순(의학76/30회, 하남진단방사선과의원)=1월 28일 빙부상

◇박병두(관광대학80/30회, 관광대학동문회장, 총동문회 부회장)=1월 27일 빙모상

◇서미숙(미술80/32회, 매산중학교 교사)=1월 30일 모친상

◇소병익(모교 토목·건축대학 교수)=2월 17일 모친상

◇손용석(모교 국제·경영대학 국제경영학부 교수)=2월 21일 부친상

◇양한호(경영61/13회, 현대통신(주) 대표이사 사장, 총동문회 자문위원)=2월 28일 빙모상

◇원시권(의학83/37회, 프레아미소의원 원장)=1월 15일 부친상

◇유기은(회계85/40회, 삼정회계법인 이사)=1월 12일 부친상

◇윤무도(미술70/25회, 청원고등학교 교사)=1월 31일 모친상

◇이민호(사학85/39회)=2월 20일(화) 부친상

◇이봉주(모교 국제·경영대학 교수)=1월 5일 빙모상

◇이순자(생물61/13회, 전 여성동문회 회장, 총동문회 부회장)=1월 16일 모친상

◇이순정(의학83/37회, 마산삼성병원 일반외과)=1월 28일 빙부상

◇이찬형(화공73/28회)=1월 12일 부친상

◇이한규(영문76/28회, 모교 영미어학부 교수)=2월 1일 부친상

◇정석종(상학63/15회, ERS외국어학원 원장)=2월 11일 모친상

◇정연모(모교 전자·전파공학전공교수)=2월 11일 빙부상

◇정일균(의학74/28회, 울산 예일 마리아성의원 원장)=1월 14일 별세

◇조아랑(의학91/45회, 경희동서신의학병원 정신과)=2월 20일 조부상

◇진승범(의학76/30회, 진승범내과의원)=1월 29일 부친상

◇추규열(의학73/27회, 추규열외과의원)=2월 24일 모친상

◇최경칠(체육64/16회, 인천전문대학 교수)=1월 12일 별세

◇최정욱(모교 예술·디자인대학 의류디자인전공 교수)=2월 26일 시부상

◇최재구(의학78/32회, 미성형외과)=1월 18일 빙부상

◇최태훈(미술88/43회)=1월 17일 모친상

◇한정수(대학원, 모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1월 10일 부친상

◇황민규(의학89/43회, 동서병원)=2월 2일 빙부상



정성으로 보내 주신 성금 감사드립니다

〈2007년 1월 10일 부터 2007년 2월 19일 까지 접수분〉

동문님께서 내 주시는 연회비와 이사회비는 모교 및 동문회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으며, 평생회비는 동문회의 운영기금 확보를 위해 전액 적립되고 있습니다. 정성어린 성금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 경희대학교충동문회 사무처

회장단 분담금

100만원 (당연직부회장 30만원)



이병하(경제12)
수석부회장
10,000,000원



고영준(정외21)
부 회장
1,000,000원



김석산(영문12)
부 회장
1,000,000원



문재인(법학28)
부 회장
1,000,000원



이성근(임학25)
부 회장
1,000,000원



이 송(의학28)
부 회장
1,000,000원



이태훈(법학20)
부 회장
1,000,000원



차봉오(한의6)
고 문
1,000,000원



홍기현(법학11)
자문위원
300,000원

회비입금계좌

지로번호 : 8000785

국민은행 : 817-25-0007-721

농 협 : 053-01-253561

신한은행 : 324-01-106552

우리은행 : 845-203729-13-001

제일은행 : 129-10-217854

하나은행 : 178-910012-61604

경희대학교 충동문회

해외에서 보내실때

해외은행에서 한국 국민은행으로 계좌이체 송금 또는 개인수표를 우편으로 충동문회 수신송금

NAME :

The Kyung Hee University Alumni

Kook Min Bank Tonhwamun Branch

Swift Code : CZNBKRSE

A/C : 817-25-0007-721

- 인터넷지로 납부시에는 이름, 학과, 졸업 회수(입학 년도), 연락처 등의 납부자 정보를 꼭 입력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통장으로 입금하실 경우에는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사회비

15만원

권태근(체육13)	김해수(법무원)	신용철(사학12)	이명용(신방23)	임동구(의학23)	최동주(정외26)
금동식(정외6)	노숙희(대학원)	안영철(상학10)	이성복(치의32)	장완성(태권도39)	최두식(경대원)
김갑석(NGO원)	동일수(정외8)	오재훈(법학26)	이수부(법학20)	장해수(법학12)	최환영(한의21)
김규환(행대원)	박갑제(약학19)	옥주석(경영20)	이승원(영교20)	전영대(산업공31)	탁기천(경제35)
김덕교(의학41)	박금출(치의30)	윤승열(화학16)	이영우(경제18)	정덕환(의학24)	홍광석(상학12)
김상수(정외16)	박대병(경대원)	윤종훈(대학원)	이용택(화학공26)	정진택(한의11)	홍기준(평복원)
김승익(행정30)	박영석(회계42)	이경숙(기약34)	이종욱(기약29)	조서환(영문30)	홍영화(화학공19)
김장현(한의27)	박용일(경영19)	이경표(정외16)	이학봉(경제20)	천승덕(물리43)	황규대(법학10)
김태희(한의33)	박정일(법학16)	이근혁(치의29)	이현수(전자공27)	최관수(경대원)	

평생회비

30만원

김용대(의학29)	이한국(원자력45)
노영태(체육13)	임정길(의학35)
백성만(법학39)	전수조(가정28)
손일석(의학43)	정기환(물리26)
이성복(치의32)	정봉교(화학26)

연회비

2만원

【문과대학】	송후석(국문9)	주광택(국문14)	이명환(사학30)	석종루(영문13)	김금동(철학38)	정용협(물리32)
강경자(국문25)	이경하(국문35)	최석환(국문9)	이지연(사학52)	안귀자(영문35)	배성희(철학38)	한 정(물리34)
강용준(국문25)	이승철(국문40)	홍용희(국문38)	안병창(영문38)	윤영섭(영문26)	장윤춘(철학34)	한학석(물리53)
강준모(국문35)	이원국(국문13)	황봉희(국문48)	김규만(영문16)	전형진(영문12)		고사영(생물10)
노경아(국문37)	이원호(국문25)	권대성(사학11)	박석태(영문25)	정권욱(영문30)	【이과대학】	김준연(생물29)
손경훈(국문8)	임종수(국문38)	김성철(사학40)	서진동(영문34)	황미옥(영문33)	박보규(물리49)	김환균(생물51)

협찬금

정영섭(법학6) 100,000

충동문회 홈페이지
www.khua.or.kr

충동문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PROFILE

경희대 법대 졸업 (18회)
경희대학교 충동문회 부회장
경희대 여성동문회 수석부회장
CTS '이애라 목사'와 찬양활동을 방영 중
종교교육학 박사



이애라국제찬양울동신학원

www.leeaera.co.kr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51-8 예찬빌딩 Tel. 02)587-2147

연 회 비

2만원

이정희(생물12)	이정학(법학42)	홍대식(경제30)	남궁신조(경영16)	홍훈표(의학42)	조의재(한의10)	남궁경자(영교33)	황남두(체육10)	이승범(토목공26)	송유면(국제경영50)
이순옥(생물12)	이종욱(법학13)	홍세민(경제15)	문대수(경영27)		차준환(한의5)		황형구(체육22)	이재열(토목공31)	
피상현(생물12)	이종후(법학16)	이승희(국방외교20)	박영광(경영17)	【한외과대학】	최수현(한의32)	【생활과학대학】		이준우(토목공38)	【예술□디자인대학】
강해정(지리50)	이창희(법학13)	최필욱(국제통상49)	변일웅(경영44)	강경태(한의39)	최장환(한의20)	조은희(가정관리41)	【외국어대학】	임두순(토목공29)	박태석(조경51)
고명수(지리15)	이형실(법학19)	권희진(무역40)	서진호(경영20)	고동완(한의37)	최대원(한의36)	정임숙(식영31)	김현진(불문32)	조일현(토목공39)	
김규옥(지리11)	이희배(법학13)	김건철(무역44)	송준호(경영37)	곽세용(한의18)	하태숙(한의15)	이예옥(식영31)	조성우(서반아43)	지원택(토목공34)	【환경□응용화학대학】
김명학(지리32)	임삼만(법학16)	김경구(무역40)	안수암(경영23)	김광철(한의23)	한기섭(한의10)	김화선(식영33)	최나리(서반아51)	김명호(화학공31)	김정운(화학및소재5)
김영락(지리26)	임종일(법학27)	김경용(무역32)	안호택(경영44)	김낙기(한의34)	한화중(한의12)	유영신(아동주거48)	김광운(일본36)	김수영(화학공35)	
김종현(지리13)	장순정(법학38)	김수봉(무역41)	염병만(경영22)	김동환(한의12)	허성욱(한의34)		박재은(일본38)	김용하(화학공22)	
신선균(지리17)	장재혁(법학45)	김영섭(무역41)	원태희(경영40)	김병현(한의7)	허필성(한의8)	【호텔관광대학】	홍명수(중국어52)	김응수(화학공21)	【경영대학원】
유재성(지리12)	전길석(법학10)	조규식(무역35)	윤덕진(경영42)	김성진(한의21)	황순욱(한의14)	이재철(관광경영32)	원문경(중문32)	남영곤(화학공45)	강대훈(경대원)
유태상(지리43)	전병기(법학50)	조인석(무역46)	이수영(경영19)	김영동(한의35)		채희재(관광경영44)		류호명(화학공38)	김도형(경대원)
이우형(지리33)	정경택(법학11)	김원택(신방20)	이진우(경영37)	김영환(한의33)	【치과대학】	윤희완(관광통역31)	【공과대학】	손성욱(화학공32)	김승규(경대원)
장덕환(지리27)	정동순(법학26)	김창수(신방17)	최덕철(경영24)	김용철(한의11)	강한중(치의39)	정봉규(관광통역42)	권은상(건축공23)	송석철(화학공35)	김종명(경대원)
김미경(화학33)	정수도(법학16)	박문정(신방23)	최지호(경영41)	김용환(한의15)	김건주(치의42)	황창석(관광통역34)	김동수(건축공32)	원구호(화학공21)	김진국(경대원)
문상수(화학19)	정은복(법학12)	박봉준(신방24)	최화식(경영25)	김용시(한의34)	김동근(치의38)	김선희(관광통역52)	민준식(건축공54)	원대희(화학공35)	김태환(경대원)
석범규(화학43)	정일준(법학12)	박호준(신방24)	강원식(상학10)	김익수(한의14)	김재일(치의27)	김복희(조리과학41)	박종찬(건축공31)	이종래(화학공36)	김호천(경대원)
이문형(화학30)	조병두(법학10)	송승부(신방21)	강창호(상학17)	김중승(한의8)	김형찬(치의39)	김용식(조리과학40)	유병언(건축공32)	이철환(화학공31)	류현호(경대원)
정택기(화학41)	조유균(법학10)	오장환(신방28)	김유민(상학13)	김중식(한의14)	문수인(치의37)	이흥구(조리과학41)	윤상문(건축공37)	임영화(화학공26)	박인철(경대원)
조선욱(화학29)	지진웅(법학14)	이 철(신방21)	김일선(상학19)	김진일(한의32)	박갑용(치의22)	권대현(호텔경영33)	이성용(건축공24)	최성순(화학공29)	박종해(경대원)
한교민(화학15)	채삼열(법학19)	임치진(신방21)	김한배(상학12)	김진중(한의16)	박영호(치의32)	박찬소(호텔경영41)	이영학(건축공44)		심성부(경대원)
	채승기(법학12)	권도형(정외51)	김행만(상학17)	김태윤(한의32)	박호정(치의34)	신정하(호텔경영40)	최윤만(건축공29)	【테크노공학대학】	이관수(경대원)
【법과대학】	최 진(법학14)	김명수(정외14)	김홍일(상학19)	김한성(한의16)	신호식(치의38)	이종태(호텔경영29)	한문조(건축공38)	장미일(기계공52)	이광선(경대원)
강대안(법학10)	최교학(법학40)	김상수(정외16)	박기준(상학17)	김한수(한의14)	옥채석(치의39)	임상욱(호텔경영43)	홍석중(건축공40)	최영진(기계공52)	이규길(경대원)
강석주(법학9)	최정환(법학22)	김시용(정외11)	박명규(상학12)	김형진(한의15)	유영선(치의32)	장평길(호텔경영40)	공성열(기계공46)		이명식(경대원)
강영태(법학12)	한만수(법학40)	김옥원(정외15)	박종호(상학13)	김형진(한의27)	이봉훈(치의35)	윤석우(치의25)	김동우(기계공25)	【사회과학대학】	조두연(경대원)
강종정(법학15)	한응락(법학8)	김윤길(정외5)	박창요(상학10)	문성규(한의5)	이성우(치의26)	이훈호(치의35)	남성원(기계공34)	김성만(경영35)	조원철(경대원)
강중구(법학16)	한중석(법학3)	김익수(정외38)	서동기(상학17)	박금렬(한의37)	장갈상(치의51)	【음악대학】	노장태(기계공33)	김홍우(경영34)	
공홍섭(법학20)	한창수(법학10)	김탁곤(정외19)	송무섭(상학13)	박병준(한의8)	장수일(치의22)	강옥자(기악16)	박우석(기계공34)	이규오(경영37)	【교육대학원】
권순무(법학13)	함순용(법학3)	김혁수(정외28)	송성진(상학12)	박상원(한의37)	장지우(치의21)	김성지(기악19)	봉인용(기계공26)	이봉열(경영34)	김지영(교대원)
권오륜(법학10)	홍기우(법학21)	박우식(정외12)	신현국(상학17)	박운용(한의13)	장지현(치의25)	김희자(기악17)	손진식(기계공35)	백승철(무역46)	박정근(교대원)
권희덕(법학6)	황진석(법학39)	박은규(정외31)	유기용(상학13)	박용진(한의14)	정 철(치의23)	박문길(기악23)	안기덕(기계공34)	강병권(행정38)	심동섭(교대원)
김 원(법학10)		백명제(정외6)	이용식(상학16)	박원식(한의6)	천무철(치의34)	박은영(기악46)	양철준(기계공31)	유용철(행정41)	이동규(교대원)
김광중(법학17)	【정경대학】	서일영(정외20)	최규린(상학13)	박쾌환(한의29)	최동원(치의39)	임승박(기악19)	전정우(기계공33)		이현규(교대원)
김기천(법학10)	강덕구(경제42)	송순석(정외9)	태양철(상학17)	박태수(한의12)		황의철(기악17)	조경희(기계공35)	【체육과학대학】	정옥선(교대원)
김남수(법학14)	강태준(경제8)	안천학(정외6)	홍순교(상학10)	서정주(한의25)	【약학대학】	김신일(성악31)	한동인(기계공19)	마철준(스포츠지도51)	
김동욱(법학27)	강경호(경제35)	유재욱(정외10)	김노기(회계33)	성현제(한의22)	구교환(약학9)	양영일(성악12)	황재봉(기계공36)	강 민(체육33)	【행정대학원】
김명근(법학33)	김남욱(경제9)	윤두영(정외20)	김정태(회계42)	소성섭(한의9)	국재섭(약학7)	정 건(성악20)	방재영(산업공50)	김영주(체육34)	김대영(행대원)
김상현(법학12)	김봉배(경제10)	윤병희(정외11)	김종관(회계43)	손원창(한의19)	김경수(약학26)	김용환(음악12)	윤영호(산업공43)	신동길(체육43)	김동구(행대원)
김선우(법학13)	김석태(경제36)	이기봉(정외33)	김태식(회계32)	손재업(한의5)	김규상(약학18)	박재광(음악11)	홍성무(산업공44)	유귀홍(체육36)	김장준(행대원)
김선원(법학4)	김성식(경제10)	이상해(정외23)	양춘희(회계32)	30,000	김대영(약학31)	강현식(작곡28)	김원준(섬유공33)	윤종서(체육39)	김종배(행대원)
김선조(법학21)	김영철(경제14)	이승우(정외9)	오경근(회계38)	송수완(한의27)	김병찬(약학10)	고경숙(작곡25)	박창영(섬유공30)	이연근(체육38)	박찬식(행대원)
김성주(법학17)	김옥래(경제14)	이원복(정외32)	유기은(회계40)	송옥걸(한의28)	김종기(약학25)	이미혜(작곡28)	성술용(섬유공30)	이진근(체육34)	서정률(행대원)
김수철(법학20)	김을식(경제28)	이태호(정외14)	장우봉(회계39)	송용진(한의8)	김지영(약학34)		31,794	조병일(체육35)	신건배(행대원)
김영철(법학9)	김인목(경제21)	장세돈(정외11)	홍성배(회계41)	신동민(한의31)	박형근(약학45)	이기원(경기지도17)	송원호(섬유공25)	채정훈(체육45)	안용덕(행대원)
김영철(법학11)	김일식(경제34)	정병석(정외42)		신영철(한의15)	변완기(약학13)	마정순(무용26)	신광철(섬유공37)	최조연(체육34)	안철원(행대원)
김용빈(법학3)	김충기(경제23)	정종무(정외13)	【의과대학】	신영철(한의13)	석종희(약학9)	최재연(무용44)	이창희(섬유공45)	한 종(체육48)	이규상(행대원)
김운식(법학21)	나성표(경제39)	조규채(정외23)	강 옥(의학41)	심성수(한의8)	손일수(약학13)	박종갑(체력관리19)	조길만(섬유공49)	류성환(태권도51)	이규수(행대원)
김장중(법학37)	노광래(경제9)	조성관(정외31)	고영관(의학27)	심종철(한의37)	손한배(약학21)	강형진(체육16)	최동근(섬유공34)	유호성(태권도50)	이상도(행대원)
김종혁(법학30)	박경흠(경제23)	지희용(정외11)	곽동근(의학28)	양보석(한의14)	심영란(약학24)	김경복(체육16)	박완주(원자력39)	이한섭(태권도50)	이영훈(행대원)
김치중(법학22)	백오현(경제18)	최 경(정외13)	김대호(의학39)	오길용(한의18)	안경환(약학11)	김대상(체육20)	오원준(원자력45)		하금남(행대원)
김태현(법학30)	송규섭(경제14)	홍승택(정외12)	김연태(의학22)	오세영(한의41)	엄병희(약학24)	김문용(체육14)	이진섭(원자력37)	【산업대학】	한준섭(행대원)
김형철(법학16)	송근원(경제9)	권은정(행정20)	김종원(의학28)	오하식(한의16)	오선근(약학10)	김상춘(체육16)	지승준(전산47)	김성진(농학50)	
노태우(법학11)	송덕현(경제37)	김봉열(행정30)	김해경(의학28)	오형택(한의13)	오진환(약학29)	김인겸(체육18)	김덕윤(전자공34)	이영기(농학24)	【체육대학원】
류성현(법학8)	양승상(경제12)	김승곤(행정30)	류경남(의학33)	온형권(한의9)	윤성환(약학29)	김재식(체육19)	김종찬(전자공33)	최원석(농학37)	조영오(체대원)
류지환(법학45)	양상재(경제27)	김태균(행정44)	방영남(의학21)	우성덕(한의9)	윤영삼(약학22)	류근림(체육5)	김진일(전자공33)	신동만(도예24)	
문수중(법학41)	이강철(경제11)	나종무(행정17)	서병철(의학22)	유봉상(한의9)	이동희(약학10)	박문선(체육48)	김태혁(전자공33)	이윤상(도예39)	【관광대학원】
민영진(법학25)	이동신(경제9)	노성언(행정14)	성주철(의학47)	유지걸(한의30)	이윤상(약학31)	성재필(체육15)	남정훈(전자공44)	이석규(식가공39)	김현중(관광원)
민중기(법학27)	이상욱(경제9)	박성규(행정38)	신인수(의학37)	윤진화(한의16)	이장현(약학31)	신준철(체육23)	손현웅(전자공45)	최무룡(식가공30)	서병언(관광원)
박익환(법학9)	이수현(경제20)	오상근(행정27)	신현태(의학37)	윤석중(한의13)	이재석(약학7)	안두선(체육5)	주철홍(전자공40)	최중훈(식가공33)	조수자(관광원)
박준영(법학11)	이영재(경제27)	함윤호(행정13)	어수동(의학28)	이대해(한의14)	이종빈(약학16)	엄규섭(체육24)	허용훈(전자공50)	경만수(임학35)	한응범(관광원)
박한영(법학46)	이정수(경제7)		윤중훈(의학25)	이범한(한의38)	이희수(약학25)	유달자(체육13)	문상순(전파공20)	이진섭(임학21)	【국제법무대학원】
서상규(법학14)	이창현(경제51)	【경영대학】	이성호(의학38)	이성훈(의학34)	전상규(약학40)	이기세(체육14)	이일용(전파공44)	공 훈(조경31)	이승준(법무원)
서중은(법학13)	인창연(경제12)	강민춘(경영22)	이성훈(의학34)	이순강(의학38)	전성기(약학34)	이문식(체육20)	이재홍(전파공47)	오은주(조경35)	임용빈(법무원)
서형석(법학24)	임순규(경제17)	강석원(경영17)	이은혜(의학52)	이은재(의학25)	정인식(약학17)	이응열(체육14)	한옥영(전파공51)	장용동(조경29)	
송성현(법학15)	임원호(경제18)	강승태(경영31)	이재영(의학39)	이영호(한의41)	정채범(약학22)	이진일(체육43)	강종빈(토목공37)	진숙경(조경43)	【언론정보대학원】
신용희(법학8)	임종열(경제37)	곽동현(경영41)	이종도(의학21)	이인범(한의11)	정해력(약학16)	임금수(체육13)	국윤학(토목공31)		강구원(언론원)
신종식(법학7)	임종진(경제18)	김동수(경영27)	이태원(의학28)	이주성(한의20)	조보선(약학34)	임운용(체육28)	김상영(토목공31)	【자연과학대학】	허성현(언론원)
안호명(법학40)	임혜택(경제7)	김문기(경영33)	임양선(의학47)	이진섭(한의31)	황현수(약학31)	장영인(체육13)	김인권(토목공32)	송혜현(물리48)	
오부섭(법학13)	임흥택(경제33)	김상철(경영41)	임영규(의학38)	이택영(한의12)	【간호과학대학】	정성훈(체육19)	김재찬(토목공42)	이허겸(수학36)	【평화복지대학원】
유준택(법학21)	정병호(경제22)	김세권(경영22)	장수진(의학51)	장애연(한의15)	이경화(간호20)	정해성(체육13)	김중환(토목공29)	강성배(우주과학48)	강명옥(평복원)
은영보(법학16)	정춘원(경제15)	김옥규(경영19)	정용설(의학43)	전병준(한의23)	【사범대학】	최성제(체육15)	류용조(토목공34)	표유선(우주과학37)	
이건영(법학33)	차두환(경제10)	김일준(경영24)	정해성(의학35)	정규만(한의18)	강정욱(미교27)	최몽묵(체육29)	박수중(토목공49)	고일선(유전공37)	【사이버대학】
이광언(법학13)	최도영(경제38)	김재윤(경영19)	최영용(의학25)	정용환(한의9)	김 정(미교23)	최웅식(체육25)	백승윤(토목공39)	채규정(화학45)	조영진(사이버대)
이달주(법학6)	최동기(경제42)		최정환(의학33)	정지행(한의37)	이병철(미교25)	최홍묵(체육19)	손은진(토목공34)	박배식(환경39)	
이동주(법학29)	최정순(경제15)	30,000	최한성(의학44)	조민형(한의14)	【사범대학】	표재석(체육9)	안용모(토목공32)	배지훈(환경50)	이동윤(미상)
이동훈(법학17)	최창권(경제20)	김학돈(경영38)	최한성(의학44)	조삼순(한의49)	강정욱(미교27)	홍순영(체육11)	유천열(토목공26)	이충우(환경37)	20,000
이성우(법학13)	한협우(경제34)	김홍업(경영20)	하태영(의학33)	홍성만(의학39)	김 정(미교23)	황근수(체육19)	윤경섭(토목공32)	【국제□경영대학】	
이재권(법학23)	허인관(경제20)	나준흠(경영37)			홍재연(미교19)	40,000	이규용(토목공34)	김진선(국제경영51)	

정부 1.11 부동산대책
상가 '전·성·시·대'

투자자, 돈되는 상가로!

‘정일플러스’ 상가특장점

- 1 주변 상가대비 저렴한 분양가 (20%정도 낮다)
- 2 62%의 높은 전용률, 실사용면적 극대화
- 3 저금리 시대 높은 임대수익 보장
- 4 5,600세대 APT 및 2,000세대 단독주택 중심에 위치
- 5 동탄신도시 단독필지 입구 및 중앙공원 초입 독점 상가
- 6 동탄신도시 최대규모 유치원 및 교육시설 인접
- 7 계약후 빠른 입점 (8月 준공예정)
- 8 입주후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

동탄신도시 ‘상가’ 관심 집중

학원
4/5F
외국어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보습학원

병원
2/3F
내과, 소아과, 치과, 외과, 이비인후과

편의 시설
1F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부동산, 치킨집, 약국

황금돼지해 부동산 상품별 투자 전망 “수익형 부동산을 노려라”



김 해 곤 박사
충동문화 부회장

김해곤 부동산전문가가 추천하는 올해 부동산시장은 상품별 차등이 심화될 것이며, 안개국면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 마무리 정책의 하나로 집값 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는 한물 간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며, 여론도 그렇게 형성되고 있다. 이제 부동산투자는 토지나 아파트와 같은 보유자산보다는 역세권 오피스텔이나 신도시 근린상가와

김해곤 부동산전문가가 추천하는 특급상가 ‘정일플러스’

같이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상품으로 투자패턴을 바꿔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부동산 재테크 시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노후 대책을 위해 임대수익이 높은 안정적인 상품에 대부분 투자를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더 이상 시세차익을 바라보고 투자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으며, 또한 보유시 감당해야 할 세금이나 비용이 너무 크다. 그러므로 이제는 한탕을 바라보는 무리한 투자에서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현명한 투자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

동탄 신도시는 우리나라 2기 신도시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시범단지 입주시점이 임박해 있어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신도시는 무분별한 개발로 조성된 곳이 아닌 계획된 지역으로서 상가비율이 적정선이라 투자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리스크가 훨씬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범단지 입주시점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투자금이 장기간 묶일 염려없이 투자 후 짧은 기간 내에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더욱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www.jungilcnd.com

Tel : 031)889-6161
H·P : 010-3080-6100

동탄신도시 최고의 수익을 보장합니다!



분양문의

Tel : 031) 889-6161
Fax : 031) 889-5335

시행사 : (주)정일씨앤디

대표이사 김 해 곤 (전 공인중개사 출제위원, 부동산재테크교수 역임)